

2017년도 생통교육

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
문화도시 광주, 제대로 알고 들여다보기

| | |
|--|---|
| 2017년 10월 12일 - 10월 31일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 문화탐방 ---- 백제문화 관련 유적지 |
|--|---|

- 주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주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마당,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 후원 : 광주광역시

■ 프로그램

| 구분 | 일시 | 주제 | 강사진 |
|----------|-------------------|--------------------|--|
| 문화 강좌 | 10.12(목) 15:00 | 역사 | 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 전 빛고을역사교사모임 회장) |
| | 10.17(화) 15:00 | 민속 | 박종오 (민속학자) |
| | 10.19(목) 15:00 | 미술 | 김은영 (광주비엔날레 폴리사업부장, 전 전시부장) |
| | 10.24(화) 15:00 | 문학 | 채희윤 (소설가,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
| | 10.26(목) 15:00 | 공동체 | 강위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대표) |
| | 10.31(화) 15:00 | 도시재생과 폴리 | 천의영 (경기대학교 교수, 광주 3차폴리 총감독) |
| 답사 | 11.02(목) 08:00 | 백제문화 관련 유적지(공주 일원) | |

■ 목 차

| | | |
|---------|-------------------------------|----|
| 1. 제1강좌 | 시대정신의 실천지, 광주의 역사와 문화원형 ----- | 07 |
| 2. 제2강좌 | 광주, 전라도의 민속문화 ----- | 29 |
| 3. 제3강좌 | 광주비엔날레와 현대미술 ----- | 41 |
| 4. 제4강좌 | '광주 5월의 시'의 문학적 향거 ----- | 53 |
| 5. 제5강좌 | 기적 아닌 날은 없다 ----- | 67 |
| 6. 제6강좌 | 도시재생과 광주폴리Ⅲ ----- | 83 |

제1강좌 : 역사

**시대정신의 실천지,
광주의 역사와 문화원형**

노 성 태

(국제고 수석교사, 전 빛고을역사교사모임 회장)

시대정신의 실천지, 광주의 역사와 문화원형

노성태(국제고 수석교사/역사)

I. 광주의 역사

광주는 전남 동부의 산지와 서부의 평야지대를 잇는 요충지로 일찍부터 두 지역 간 생산 교역의 중심지, 행정·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옛부터 문화와 예술을 숭상하여 예향(禮鄕), 관행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외침과 불의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민족과 정의를 위해 싸웠기에 의향(義鄕)이라 불리었으며, 다양한 음식문화를 발달시켜 맛의 고장인 미향(味鄕)으로도 이름이 높은 곳이다.

광주가 남도의 중심 치소가 된 것은 신문왕 5년(685), 9주의 하나인 무진주가 되면서 지방장관인 도독이 파견되어 15개 군을 관할하면서부터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광주는 천년을 훨씬 뛰어넘는 고도인 셈이다. 그러나 중심 치소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광주에는 하이테크 기술을 갖춘 사람들의 삶의 보금자리였다.

최초의 광주인이라 할 수 있는 12만 5천 년 전의 구석인들이 치평동에 살았으며, 청동기시대에는 용두동 송학산 기슭에 북방식 고인돌을 남기기도 했다. 철기시대 신창동 사람들의 기술력은 당대 최고였다. 그들이 남긴 155센티미터 두께의 벼 껍질 압착층은 현재까지 확인된 세계 최대의 벼 생산 자료이며, 신을 만들 때 사용하던 틀인 신발골은 세계 최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비단과 현악기 '슬(瑟)', 발화도구, 수레바퀴는 한국 최고다.

후백제의 견훤은 광주를 근거지로 출발하였으며, 45년 뒤 신검이 왕건에게 망할 때는 마지막 저항지였다. 고려 태종 23년(940)에 '광주(光州)'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다.

고려 때의 유적으로는 광주의 비보사찰인 성거사터의 광주서오층석탑,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신룡동 오층석탑 등이 있다. 고종 43년(1256)에는 몽고의 차라대가 무등산을 점거했으며, 고려 말 왜구의 창궐로 6차례나 침입을 당했고, 우왕 4년(1388)에는 광주가 함락되기까지 하였다.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일대에서 왜구를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망월동에 위치한 경렬사

의 주인공 정지(鄭地)이다. 정지의 관음포대첩은 최영의 흥산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과 더불어 왜구 격파 3대첩으로 불린다.

천년이 훨씬 넘는 세월동안 무등산 자락과 광주천을 배경으로 살아 온 광주인들이 남긴 삶의 흔적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명화동·월계동 장고분도, 신라시대 축조된 무진고성도, 증심사·원효사 등 불교 흔적도, 광주에서 거병하여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의 흔적도, 전국 최초인 향약시행 장소인 부용정도, 최고급 분청사기를 구워내던 충효동 가마터도 그 흔적들이다.

인간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광주를 지켜본 것은 광주의 성황신 무등산과 광주천이었다. 무진악, 서석산, 무정산으로 불리기도 했던 무등산은 한때 몽골군과 왜군에게 유린당하기도 했지만, 한말 최대 의병항쟁지였고 광주 학생독립운동을 이끈 광주고보와 광주농교생들의 비밀결사 조직인 독서회 결성 장소이기도 했다.

무등산 샘골에서 발원하여 광주의 중심부를 가로질렀던 광주천은 어린이들의 놀이터였고 아낙네들의 빨래터였으며 시장이 서고 나이롱 극장이 열린 문화공간이었다. 1919년 3월 10일, 3·1만세운동의 함성이 울려 퍼졌으며, 1908년 호남창의회맹소 대장 기삼연 의병장이 총살당한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과 인간은 무서운 파괴자였다. 남아 있는 흔적보다 훨씬 더 많은 흔적들이 사라져버렸다. 남아 있는 것도 인위적으로 성형하여 원래의 맛을 상실하기도 했다.

대부분은 세월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지만, 더러는 광주읍 성처럼 일제의 침략에 의해 허물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더러는 개발에 눈이 뒤집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마지막 남은 광주의 옛 모습마저 깡그리 없애 버리고 만다. 태봉산이 헐리고 경양방죽이 메워지고 유림수가 베어진 건 다 그 때문이었다. 미래를 보지 못한 단견이 가져다주는 파괴는 아픔이다. 그러나 아픔도, 추억도, 흔적도 다 우리들이 가슴에 품어야 할 역사요 문화다.

천년의 역사는 수많은 영웅들을 낳았다. 견훤, 박상, 이선제, 박광옥, 고경명, 김덕령, 양진여·양상기, 최흥종, 전상의, 기대승, 정충신, 정율성, 임방울, 최병채, 박준, 박관현, 윤상원도 뱃사공으로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서창면 민들을 구제한 뱃사공 박호련도 무등산이 낳은 영웅들이었다. 20세기 초 양림산 자락에 들어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등 사랑을 남긴 푸른 눈의 소유자인 배유지, 오웬, 엘리자베스 세핑(서서핑)도 무등산이 품은 영웅들이다. 그 중 '한국의 메리슬레서'로 불린, 미국 장로회가 선정한 가장 위대

한 선교사 7인 중 한사람으로 한센병 환자들의 어머니로 불린 서서평의 삶은 감동이다. 이들 뿐 만 아닌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남도 의병과 한말 어등산에서 목숨 걸고 싸운 남도 의병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당시 선두에 선 학생과 시민들도,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무혈혁명을 이끌어 낸 다수의 시민들도 다 무등산이 품은 광주의 영웅들이다.

그 영웅들이 죽음으로 지켜 낸 가치가 의로움이며, 그 의로움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광주에서 4·19, 5·18, 6월 항쟁, 촛불집회를 통해 발현된 것이 20세기의 가치인 민주다.

광주는, 금남로는 민주의 성지다.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장송데모'가 금남로에서 일어났으며, 그 정신은 이후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사건이 된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6월 항쟁의 점화처도 광주였다. 전두환의 4·13호헌 조치에 맞서 천주교광주대교구의 남재희 신부 등 사제 12명의 단식 투쟁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의 삭발투쟁의 불씨는 이내 6월 항쟁의 불길로 번지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낸다.

이제 광주에서 발현된 민주 정신은 새로운 가치인 인권·평화의 정신으로 부활되어야 한다. 이는 국립 5·18민주묘지에 형상화된 기념탑의 원형조형물이 내포한 의미이기도 하다. 역사 속에서 축적된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은 이제 광주인의 자긍심이 되고 정체성이 되었다.

광주인들이 실천해 낸 시대정신인 민주·인권·평화는 광주만의 정신이 아닌 한국인 모두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정신이고 가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전세계인의 정신이고 가치여야 한다. 그 정신과 가치가 무등산 자락에서 잉태되었음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광주 정신은, 광주는 어딘지 허전한다. 광주를 벗어나지 못한 답답함도 있다. 어딘지 갇힌 느낌도 받는다. 이제 광주는 자랑스러운 광주 정신으로 한국민과 세계와 소통해야 한다.

신창동 유적에서 발견된 2천 년 전의 악기 '슬'이 오늘 판소리꾼 임방울의 DNA가 되지는 않았을까? 신창동 유적에서 발견된 2천 년 전의 수레바퀴살은 오늘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부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기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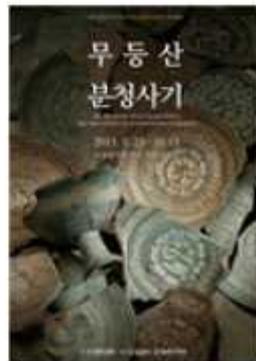
광주는 빛고을이다. '빛'이 갖는 창조성은 이미 2천 전 신창동 유적지출토 유물에서 확인되고 있다. 자긍심이 된 광주 정신 위에 광주인들이 남긴 문화 원형을 바탕으로 미래의 창조도시 광주를 꿈꾸어보면 어떨까?

II. 광주의 문화원형

▣ □ 무등산이 품은 문화원형 -정자(식영정 등)



▣ □ 무등산이 품은 문화원형 -분청사기 요지



☐☐무등산이 품은 문화원형 -불교유적



☐☐무등산이 품은 문화원형 -총장사와 충민사



▣ 영산강이 품은 문화원형 - 북릉동 화전



▣ 영산강이 품은 문화원형 - 선사유적



□ 영산강이 품은 문화원형 - 신창동 유적



□ 영산강이 품은 문화원형 - 풍영정과 호가정



▣ 영산강이 품은 문화원형 - 월봉서원



▣ 영산강이 품은 문화원형 - 임방울



□ □ 광주천이 품은 문화원형 -광주천



□ □ 광주천이 품은 문화원형 -석서정과 양파정



▣ 광주천이 품은 문화원형 -광주공원



▣ 광주천이 품은 문화원형 -사직공원



☐☐광주천이 품은 문화원형-양림동 기독교



☐☐광주천이 품은 문화원형-양림동 기독교



▣ 광주정신을 품은 문화원형 - 칠석동 고싸움



▣ 광주정신을 품은 문화원형 - 부용정, 양과동정



▣▣광주정신을 품은 문화원형 -포충사와 충장사



▣▣광주정신을 품은 문화원형 -한말의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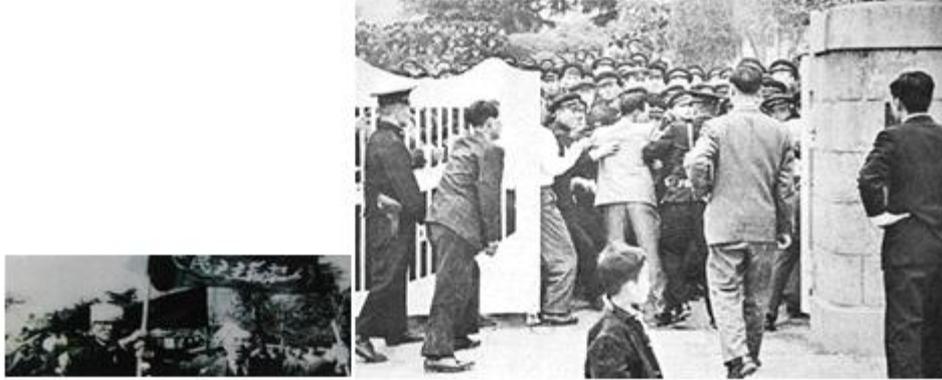
□ 광주정신을 품은 문화원형 -3.1운동



□ 광주정신을 품은 문화원형 -광주학생항일운동



□ 광주정신을 품은 문화원형 -광주4.19



□ 광주정신을 품은 문화원형 -5.18민주항쟁



▣ 광주정신을 품은 문화원형 -6월 항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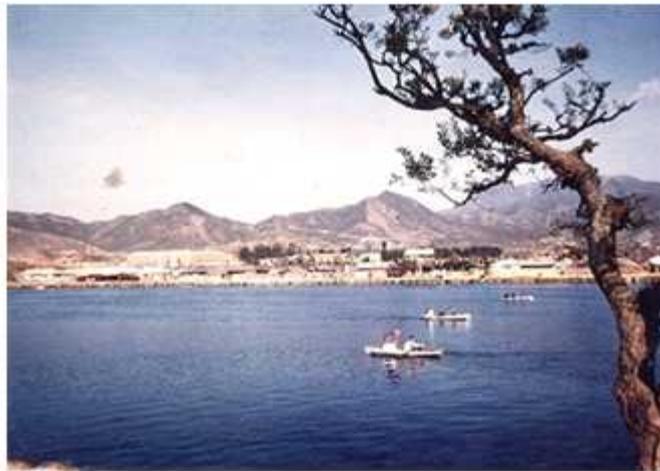
▣ 광주정신을 품은 문화원형 -촛불 집회



▣가슴에 묻은 문화원형 -광주읍성, 서원문



▣가슴에 묻은 문화원형 -경양방죽



▣가슴에 묻은 문화원형 -태봉산



▣가슴에 묻은 문화원형 -유림수



▣가슴에 묻은 문화원형 -광주향교 사마재



▣가슴에 묻은 문화원형 -동방극장



제2강좌 : 민속

**광주(光州),
전라도의 민속문화**

박 종 오

(문학박사/민속학)

광주(光州), 전라도의 민속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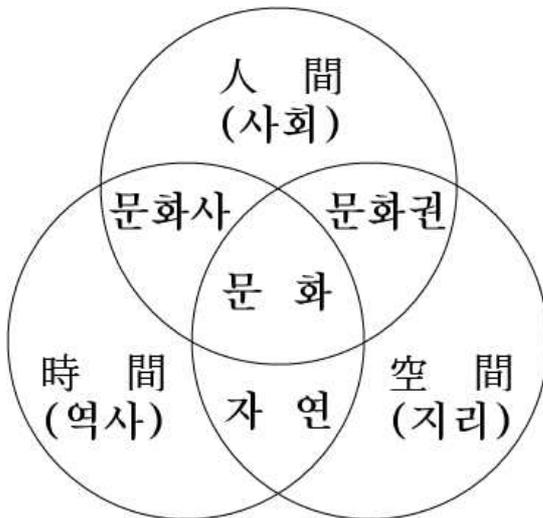
박 종 오(문학박사/민속학)

- 이야기 순서 -

1. 지역 문화를 확인해 보다
2. 지역 문화를 들여다 보다
3. 지역 문화를 되물어 보다

1. 지역 문화를 확인해 보다

• 자연과 인간의 만남 = 문화



<문화 결정 3가지 조건 (나경수, 2011)>

원래 동양에는 문화(文化)란 말이 없었다. 일본에서 서양의 culture를 번역하면서 19세기 말에 새로 만들어진 말이다. culture라는 말이 cultivation (경작)에서 나온 말이고 보면 그 본의는 자명하다. 경작되지 않으면 자연(自然)이며, 경작하면 문화인 것이다.

俗은 “人+谷”이다. 사람들은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서 물과 들이 있는 계곡에 모여 살게 되었다. 이에 대립되는 仙이라는 낱말은 “人+山”으로 이루어졌다. 자연은 스스로의 존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세계이지만, 경작

을 한다는 것은 인위적이다. 자연에 대해 쟁기로든, 팽이로든, 호미로든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계속 그것은 경작지로 남는다. 자연은 無爲를 속성으

로 하며, 문화는 人爲를 속성으로 가진다.

(참고논문 : 나경수, 「3향 문화권(三鄉文化圈) 설정을 위한 호남지역 문화표상의 탐색」, 『호남문화연구』 4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

• 전남지역 문화의 세 가지 축

전남지역은 수려한 산악과 해상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원들 중에서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강으로는 영산강과 섬진강으로 들 수 있다. 곡성군 옥과면 설산(雪山)에서부터 해남의 한반도 끝인 송지면 갈두 항까지 직선을 그어보면 대개 두 개의 지형으로 크게 나뉜다. 이 선의 서부는 북부의 노



<전남의 3대 문화 축(그림 : 발표자)>

령산지(蘆嶺山地)를 제외하면 영산강 주변의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고, 동부는 소백산맥(小白山脈)과 그 지맥들이 높은 산간지방을 형성하고 있다.

서부를 대표하는 영산강은 나주평야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류들 또한 방대하여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생활터전이

되어 왔다. 섬진강은 동부 산간지방을 흐르기 때문에 길이나 수량에 있어 영산강을 웃돌면서도 전체 도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영산강에 비해 덜하다.

또한 영산강 지역과 섬진강지역은 민속적으로도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에서는 조탑(돌을 여러 개 쌓아 믿음의 대상물이나 특수 목적을 가지고 탑처럼 만든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입석(한 개의 돌을 믿음의 대상물이나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것)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에 비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은 조탑이 입석보다도 훨씬 많이 분포한다.

또한 서부지역에서는 줄다리기를 한 후 줄을 입석에 감아두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동부지역은 이러한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울러 서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에서는 달집태우기(정월 보름에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짚·솔가지·땃감 등으로 덮어 달이 뜰 때 이를 태우며 소원을 기원하는 민속 행위)가 많이 나타난다.

여기에 더해 전남지역의 문화자원으로 도서해양문화를 더 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2008년을 기준으로 6,419km의 해안선(전국 대비 50%)과 1,965개의 섬(전국 대비 62%), 그리고 1,054km²의 갯벌(전국 대비 44%)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한 해양자원이 있어 어로활동에도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안과 강가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이며, 사람들이 창이나 작살로 물고기를 찍어서 잡은 흔적이 조개더미(패총)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어로활동은 오래전부터 행해져왔음은 짐작할 수 있다.

육지의 삶과 달리 바다를 대상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은 바다라고 하는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조상들에게 들은 지식을 후손에게 전해주었다. 어민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을 때, 혹은 갯벌에서 조개를 캐 때도 어느 철에 어느 지점에서 물고기나 조개가 많이 잡히는 지를 충분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개방성과 폐쇄성이 공존하면서 초분(草墳), 소금, 풍어제(豐漁祭), 방풍림(防風林), 씻김굿 등 다양한 민속 문화를 품고 있는 곳이다.

2. 지역 문화를 들여다 보다

• 세시풍속으로 지속되어온 고싸움 : 민속놀이

세시풍속(歲時風俗) 예로부터 전해지는 농경사회의 풍속이며 해마다 농사력에 맞추어 관례(慣例)로서 행하여지는 전승적 행사를 의미한다. 세시풍속은 음력의 월별 24절기와 명절로 구분되어 있으며 집단적 또는 공통적으로 집집마다 촌락마다 또는 민족적으로 관행(慣行)에 따라 전승되는 의식, 의례행사와 놀이이다.

세시라는 말은 한 해를 의미하는 세(歲)라는 말과 사계절을 뜻하는 시(時)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세시라는 말은 세사(歲事), 월령(月令), 시령(時令) 등으로 불리기도 해 특히 계절의 의미가 강조되어 왔다. 세시풍속은 일 년 사계절의 순환을 따라 일정한 날에 수행되는 일련의 풍속 일반을 지칭하고, 명

절, 절일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세시풍속은 일상적으로 해 왔던 일을 멈추고 일상에 리듬감을 주며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점에서 휴식적 기능, 혈연과의 만남과 사교의 장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능, 놀이와 예능이 펼쳐지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오락적 기능과 예술적 기능을 갖고 있다.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세시풍속은 예로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며, 또 옛 문헌에 보이는 것 중에는 이름만 남아 있고, 현재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 한(韓)민족에 의하여 발생되고 전승되어 오는 고유(固有)의 것도 많이 있지만 크리스마스처럼 외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전래된 것도 있고, 또 이 외래의 것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한(韓)민족의 색채가 가미되어 있는 것도 많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전통사회의 급격한 해체와 주일제도 등의 도입에 따라 예전의 생활양식은 급격히 해체 되었고, 세시풍속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풍속이 많지 않다.

사라져 가는 세시 풍속 중에 '줄다리기'라는 것이 있다. '줄다리기'는 일정한 형태의 줄을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두 편으로 갈라 서로 잡아당겨 승부를 내는 민속놀이이다. '줄다리기'는 그 놀이기구인 줄의 형태에 따라 '외줄다리기', '쌍줄다리기'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전자는 줄 하나를 가지고 그 중심부를 경계로 하여 양편으로 갈라 잡아당기는 줄다리기를 말하고, 후자는 줄에 따라 '암줄', '숫줄'이란 두 줄이 있어서 이 두 줄의 머리 즉 '숫줄'을 '암줄'의 머리에다 집어넣어 비녀목(혹은 지릿대)으로 연결하고 잡아당기는 '줄다리기'를 말한다.

광산고싸움놀이는 이 줄다리기에서 출발한 민속놀이이다. '고싸움'은 '고'라는 낱말과 '싸움'이라는 낱말이 합성해서 이루어진 말로서 두 개의 '고'가 서로 맞붙어 싸움을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고'라는 말은 웃고름이나 노끈을 가지고 매듭 지어 맬 때 한가락을 길게 빼내서 둥그런 모양을 만들어 맺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싸움'이라는 명칭은 '고싸움'을 할 때의 놀이기구인 '고'가 마치 웃고름이나 노끈으로 매듭지어 만든 '고'와 비슷한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연유하여 이 '고'가 서로 맞부딪쳐 싸움을 벌인다는 뜻에서 비롯된 낱말이다.

'웃돌' 마을은 풍수설에 와우(臥牛) 형국 즉 황소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형



<고싸움놀이 중 '고 누르기'(표인주, 2015)>

국이라 터가 무척 거세다고 한다. 그래서 이 거센 터를 누르기 위해서 소의 입에 해당되는 곳에 구유(이곳 사투리로 '구수')를 상징하는 연못을 파 놓았고, 이 연못 구유에서 소가 항상 먹이를 먹게 함으로써 일어

| | 줄다리기 | 고싸움 |
|----------|------------------------------------|------------------------------------|
| 놀이시기 | 정월 15일경 압도적이다 | 정월 15일경이다 |
| 놀이장소 | 보리밭이나, 강변에서 한다 | 보리밭에서 한다 |
| 놀이기구의 모양 | 줄머리에 '고'와 꼬리가 있다 |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다 |
| 놀이기구의 재료 | 짚, 칩, 억새, 죽피 등이 사용되나 짚이 대표적 | 짚으로 만들고 대(竹)가 들어간다 |
| 놀이기구의 자용 | 암줄과 숫줄이 있다 동부는 남성, 서부는 여성을 나타낸다 | 암고와 숫고가 있다 동부는 남성, 서부는 여성을 나타낸다 |
| 줄의 상징 | 용이나 뱀을 상징한다 |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마뱀이라고도 한다 |
| 속신 | 여성을 상징하는 서부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 | 여성을 상징하는 서부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 |
| 승패방법 | 잡아당기면 이긴다 | 부딪쳐 누르면 이긴다 |
| 지휘자의 위치 | 땅 위에서 한다 | '고'를 타고 한다 |

<줄다리기와 고싸움 놀이 비교(지춘상, 1996)>

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황소가 일어서면 부락에 많은 피해가 오므로 일어서지 못하게 그 고삐를 할머니 당신인 큰 은행나무에 묶어 놓았으며, 꼬리에는 일곱 개의 바윗돌로 눌러 놓았다는 것이다. 한편 와우(臥牛) 형국이라 터가 거세기 때문에 개(犬)가 자라지 않아 집집마다 개 대신에 거위를 기르고 있다고 한다. 이 거센 터를 누르기 위해서 '고싸움'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싸움놀이는 1940년경에 단절된 것을 1969년 7월 지춘상 교수가 재구성하였고, 1969년 10월 대구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편싸움 계통의 집단 민속놀이로 1970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

•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 당산제 : 공동체의례

공동체 신앙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수호신에게 자신들의 마을이 일 년 동안 탈이 없음과 풍년(豊年)을 기원하면서 모시는 제사로 당산제, 당제, 동제(洞祭), 동신제(洞神祭), 산제(山祭) 등으로 부른다.

공동체 제의에는 마을 구성원 전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며, 모시는 대상 신 또한 마을 전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명확하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 제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종교적 공동체로 묶는 역할을 하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를 종교적 공동체라는 단위로 묶어 그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남지역 공동체 신앙의 대표격인 당산제는 그 수행양상에 따라서 크게 제사형, 풍물형, 무속형, 혼합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사형은 주로 유교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양식, 풍물형은 풍물패 위주로 수행되는 양식, 무속형은 무당의 주재 하에 수행되는 양식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을 대표하는 덕남마을은 원래 덕고개 남쪽의 큰마을이라 하여 뜻에서 유래되었다. 북쪽으로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덕남 가는 길을 따라 가면 노대동 신기마을이 있다. 사방이 모두 산지로 둘러 싸여 아늑한 모습을 하고 있다. 덕남재 고랑에서 발원한 수춘천은 마을 앞을 지나며 좁은 들을 적시고 서편 향등제에 담겼다가 양과동으로 흘러간다.

마을의 동제는 당산제라고 불린다. 마을 사람들은 당산제의 시작은 마을의 형성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마을의 당산나무를 약 500여년 정도로 추정하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형성 역시 약 500여년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당산제가 시작된 이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마을은 두 번의 제사를 지낸다. 본 제의인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지내고, '파계'라고 부르는 제의는 14일을 포함하여 사흘 째 되는 날(16일)에 지낸다. 당산제를 통해 신이 내리면 3일간 두었다가 '파계'를 통해 신을 돌려보내고 지방을 소각하는 것이다.

당산은 할아버지당산과 할머니당산으로 나뉜다. 특이하다고 한다면 마을에 당산나무가 있음에도 무덤을 신체로 모신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당산은 노인당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룡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할머니당산은 노인당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산신이라고 부른다.

제의를 지내기 3일 전 마을회의를 통해 제관을 뽑는다. 예전엔 정월 초에 날을 받아 제관을 뽑았으나 요즘에는 3일전에 뽑는다. 제관은 화주, 집례, 축관, 헌관을 뽑는다. 이 중 헌관은 초헌, 아헌, 종헌을 각각 뽑았으나, 최근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한 명이 할 때도 있다.



<당산제를 모실 때 제물을 차리는 모습(이명진, 2006)>

제관은 좋은 사람을 가려 뽑으며,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합방하지 않으며, 목욕은 집에서 하되 차가운 물로 하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목욕을 한다. 젊은 사람은 부부 합방의 금기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든 사람들을 주로 뽑는다고 한다.

화주는 원래 남자가 했지만,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를 뽑는 경우도 있다.

당산제 지낼 때가 되면 옛날에는 인구수에 따라 거출을 했는데, 지금은 지원금과 마을 사람들 중에서 제비나 제물을 내놓고 싶은 사람이 내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가족의 복을 빌거나 소지할 일이 있는 사람이 제비를 내놓는 것이다. 떡을 만드는 시루나 제기들을 사서 내는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은 소머리를 내기도 한다.

14일 오전 일찍 마을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인다. 그리고 청소담당, 금줄담당, 황토담당 등 각 소임을 분담하여 마을 대청소와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를 실시한다. 마을을 청소하는 동안 금줄이 준비되고, 황토도 가져다 놓는 것이다.

청소가 끝나면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깬다. 황토는 가까운 언덕에 좋은 것이

있어서 가져다가 쓴다고 한다. 금줄을 치고 나면 외부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내부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마을 청소가 끝나면 사람들이 모여 함께 당샘의 물을 품는다. 원래는 화주가 제주를 담기위해 목욕을 하고 청소를 하였지만, 언제부터인가 따로 제주를 담지 않게 된 이후로 14일 오전에 샘물을 품는다.

초이레 경 화주는 목욕을 하고 샘을 품고 청소를 한 다음 물을 길어다 술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1950여년 이후 막걸리의 맑은 물인 청주를 썼는데, 지금은 편리하게 소주를 쓴다.

제물은 14일 새벽에 장만하며, 양동시장을 주로 이용한다. 마을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금줄과 황토를 까는 동안 화주는 장을 보러 가는 것이다. 장을 보러 갈 때는 목욕을 하고 가야하며, 물건을 살 때는 값은 물어볼 수 있어도 물건의 값을 깎지는 않는다. 값을 깎으면 성의가 손상된다고 여겼다. 물건을 살 때는 안면이 있는 집으로 가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당산제 지내는 것을 알고 적당한 가격을 부른다고 한다.

원래 제물은 화주 집에서 만들었으나, 지금은 노인당에서 만들고 있다. 제물의 장만은 '1, 3, 5'의 홀수로 한다. 과실이나 나물은 3가지를 쓴다. 나물은 '무나물, 고사리, 도라지'를 올리고 과실은 '대추, 밤, 곶감'을 올린다. 그 외 음식으로는 떡, 밥, 국(미역국) 등을 장만 하며, 육고기를 올릴 때에는 소머리를 쓴다. 제물은 비린 것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마을은 떡(흰백설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떡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특히 미혼 여성은 시집을 가게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의가 끝나면 떡을 조금씩이라도 얻어서 집으로 가져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금씩 나누어 먹는다.

제의는 윗당산부터 지내고 아랫당산에 지낸다. 윗당산에는 '天龍之神', 아랫당산에는 '堂山之神'이라는 위패를 써 붙이고 유교식 제차(祭次)에 의해서 진행된다. 특히 할머니당산 옆 공터에 불을 피워 놓고 동네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을 하고 모두 함께 음복을 함으로써 엄숙하기보다는 잔치와 같은 분위기가 어우러진다.

음복까지 마치면 굿놀이가 진행되는데 할아버지당산과 할머니당산 주위를 돌면서 굿을 친 후 '原泉之神'이라고 써서 붙인 샘으로 가서 샘굿을 친다. 새벽녘에 굿놀이를 마치고 화주집에서 메구를 쳐준다.

당산제를 지내고 나서 16일 '파계'라고 하여 또 한 번의 제사를 지낸다. 독축을 하는 것만을 빼면 제의 순서는 14일 당산제 때와 같다. 제물은 14일에 비해 훨씬 간략하며, 제기도 많이 쓰지 않는다. 제의가 끝나면 지방을 떼어

내어 소각한다. 이것으로 덕남 마을의 당산제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다.

3. 지역 문화를 되물어보다

광주광산구 삼도동 내동마을은 해년마다 정월 14일 낮에 줄다리기를 하고 밤에는 당산제를 지내어 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15일 낮에 줄을 만들어 당산에 감고, 당산제를 지내며 밤에는 달집을 만들어 달집태우기 행사를 행하고 있다.

마을 안쪽에 할머니 당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줄을 드리고, 완성



<축제에 사용할 달집(박종오, 2009)>

된 줄을 가지고 마을 뒤편 골목을 따라 마을을 한바퀴 돌아 당산 앞으로 온다. 이곳에서 줄다리기를 행하고, 줄을 당산나무에 감은 후 당산제를 모신다. 당산나무가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 골목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골목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행하는 당산제와 줄다리기가 이루어졌던 곳이다.

마을 앞 영산강변 뚝 밑에서는 몇 년 전부터 달집태우기를 행하고 있다. 달집태우기는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세시풍속으로 달집 사르기라고도 한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 농악대와 함께 망우리를 돌리

며 달맞이할 때 주위를 밝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짚·솔가지·땃감 등으로 덮고 달이 뜨는 동쪽에 문을 내서 만든 것을 달집이라 한다.

이 달집태우기는 전라도 산간지역에 많이 보이는 것으로 원래 내동마을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축제적 분위기로 당산제를 지내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행하고 있던 달집태우기를 차용하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들녘 일대는 농업이 발달했으며 이 가운데 “서창 만드리”라는 독특한 농요를 만들어 불러왔다.

“만드리”란 논을 마지막 김매기, 즉 맨 나중에 논에 자라는 잡초를 없애는



<만드리 시연(박종오, 2017)>

일로 “만물”이라고도 하는 “만도리”에서 유래된 말이며 세벌 김매기를 할 때인 7월 백중(음력 7월 15일)에 불렀던 노동요로 힘든 농사일에도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등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농사를 짓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의례이다.

행사는 풍물공연, 만드리 보존회원과 들노래를 따라 부르는 의식 등으로 치러진다. 의식이 끝나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말)’이 새겨진 농기와 만드리기를 앞세운 일꾼 100여명이 논으로 이동해 김매기에 들어간다. 김매기를 마친 일꾼들이 황소를 타고 들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들어오면 구청장이 농주가 돼 술과 음식을 주고 격려한다.

서구는 서창·발산·중촌마을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들노래의 명맥을 잇고자 각종 사료를 검증해 1999년 만드리 풍년제를 복원했다.

제2강좌 : 미술

광주비엔날레와 현대미술

김 은 영

(광주비엔날레 폴리부장, 전 전시부장)

광주비엔날레와 현대미술

김은영

광주비엔날레 창설

- 1995년 '미술의 해' 지정에 따른 범정부 차원 행사
- '예향 광주'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하고자 한 도시문화 정책
- 5·18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인한 상처를 문화적으로 치유 승화
- 베니스비엔날레 100주년, 한국관 개관에 맞춘 창설의지

베니스 비엔날레

- 1895년 창설
- 이탈리아 국왕 움베르토 1세와 마르게리타왕비의 은혼식 기념
- 본 전시, 국가관 전시, 연계전시 등으로 구성
- 국가관은 세계 각국이 자체적으로 전시기획 (국가관 26개국)
- 올해 제57회 베니스비엔날레 (주제:비바 아르테 비바)

베니스

- 비엔날레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그림으로 뒤덮힌 도시
- 광주비엔날레가 예향의 토대인 남종화의 고장 광주에서 태동한 것과 같은 맥락
- 르네상스 시기, 베니스는 피렌체와 비견되는 뚜렷한 회화적 화풍 형성
- 베니스화파, 풍부한 빛과 색채가 중요한 미학적 개념 회화는 소묘에 채색을 더한 것 이상의 의미

베니스의 티치아노 '성모와 성인들과 페사로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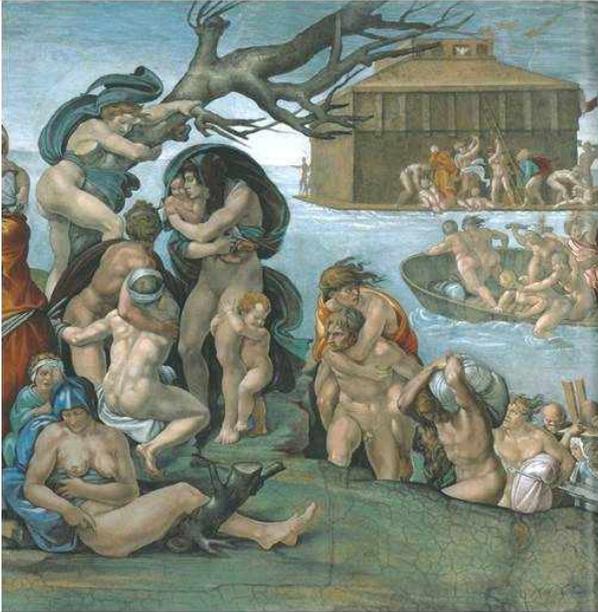
색채로서 감각적인 아름다움 실현
중요롭고 따뜻한 색채로 전통적인 구도의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통일성을 회복하기
위해 색채에 의지



피렌체

- 위대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재생, 부활을 위해 자신감과 희망이 강하게 나타난 도시이자 부유한 상업도시
- 단테와 조토의 출생지
- 조형적 형태주의 중심의 데생실력 강조
- 색채보다는 소묘에 큰 관심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천지창조'중 대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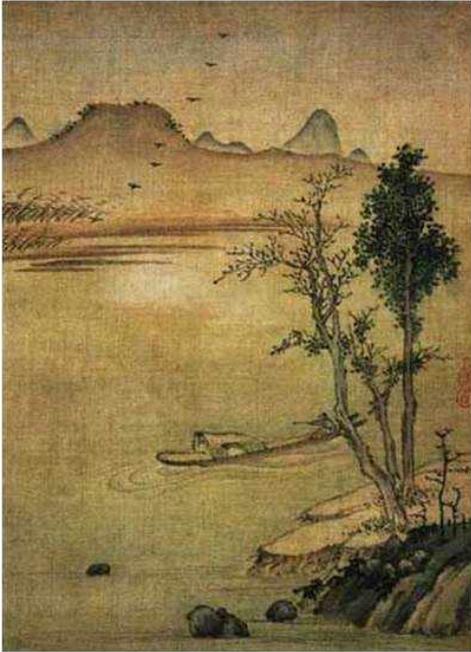


“데생을 잘하면 색채가 필요 없다.”

남종화와 광주비엔날레

- 남종화의 뿌리는 호남지방
- 남종화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유행을 본 것은 윤두서부터
- 윤두서는 남종화의 선구이자 조선풍 남종화 창출, 속화의 선구
- 자연사물을 닮게 그리는 형사(形似)보다는 화가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표출하는 사의(寫意)를 중시

윤두서 작 <평사낙안도>



근경의 낮은 언덕과 몇 그루의 나무,
넓은 수면, 그 뒤편의 산들이 이루는 간절
한 구도와 구성을 원말사대가 예찬 계통
'고씨역대명인화보' 등 중국화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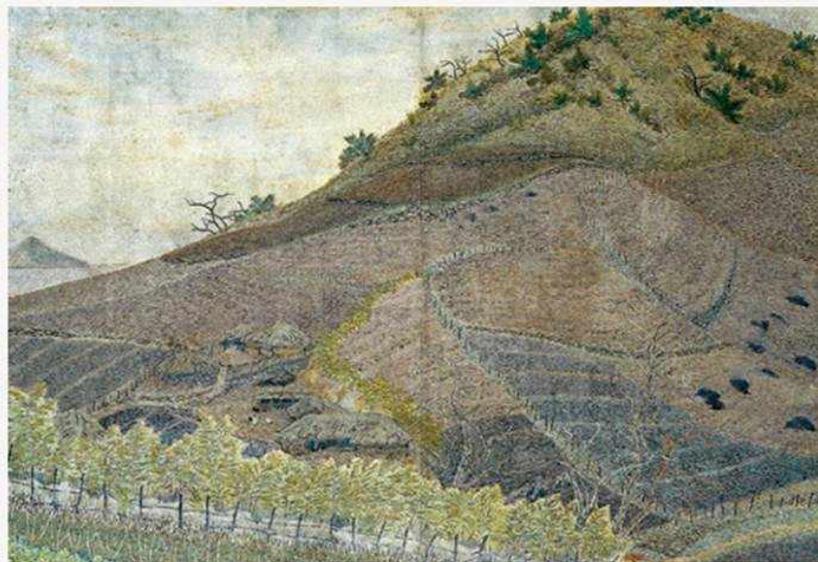
허련 작 <하경산수도>



허백련 작 <송하한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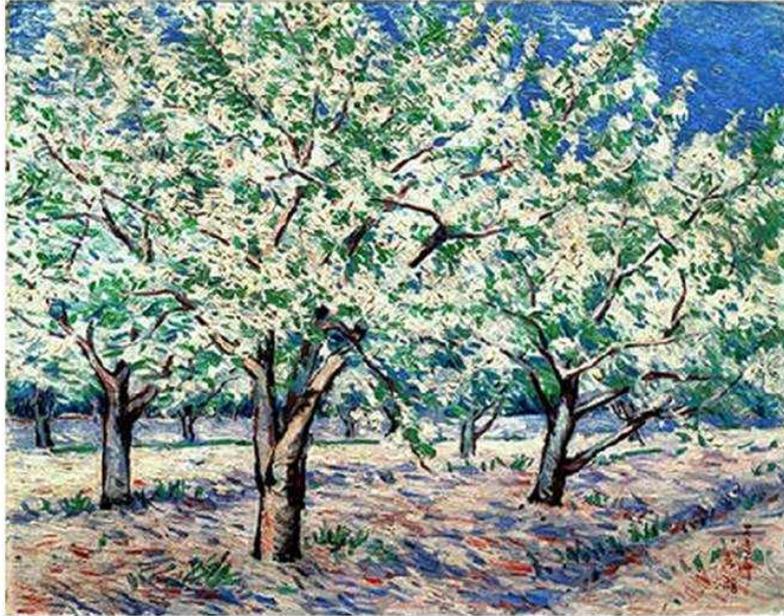


허건 작 <목포교외>



'목포 교외' 137 x 171.5 cm, 종이에 수묵채색, 1942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오지호 작 <사과밭>



광주비엔날레 특성

- 실험적 현대미술 정신과 형식으로 시대문화의 새 장을
열어가는 격년제 국제현대미술전
- 광주정신에 바탕을 두고 시대의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적 시각문화 현장
- 세계현대미술과 인문사회분야를 매개 융합하는
소통과 교류의 문화플랫폼

광주비엔날레 역대 행사

- 제1회 : 경계를 넘어(1995.9.20.~11.20)
본전시(50국 92명), 특별전 등 관람객 163만명
- 제2회 : 지구의 여백(1997.9.1.~11.27)
본전시(35국 117명), 특별전 등 관람객 92만명
- 제3회 : 人+間(2000.3.29.~6.7)
본전시(46국 90명), 특별전 등 관람객 61만명
- 제4회 : 멈-춤_PAUSE_止(2002.3.29.~6.29)
프로젝트1(33국 326명), 프로젝트2(저기:이산의 땅) 등 4개 프로젝트 등
관람객 41만명
- 제5회 : 먼지 한톨 물 한방울(2004.9.10.~11.13)
주제전(39국 104명, 참여 관객60명) 등 관람객 52만명

광주비엔날레 역대 행사

- 제6회 : 열풍변주곡(2006.9.8.~11.11)
주제전(첫장/마지막장,30국 101명) 관람객 72만명
- 제7회 : 연례보고(2008.9.5.~11.9)
주제전(길 위에서/제안/끼워넣기,36국 159명) 관람객 36만명
- 제8회 : 만인보(2010.9.3.~11.7)
주제전(30국 134명), 관람객 49만명
- 제9회 : 라운드테이블(2012.9.7.~11.11)
주제전(40개국 92명) 관람객 65만명
- 제10회 : 터전을 불태우라(2014.9.5.~11.9)
주제전(38국 103명) 관람객 18만명
- 제11회 : 제8기후대(2016.9.2.~11.6)
주제전(37국 120명) 관람객 41만명

광주비엔날레의 도시문화 파급효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광주비엔날레가 축적해 온 국제적 위상과 역량을 토대로 200년 국책사업으로 시작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창설

- 광주비엔날레 국제기반을 활용한 광주디자인산업진흥위해 2004년 창설
- 2005년 제1회부터 2013년 제5회까지 광주비엔날레 주관 개최]
- 2015년 제6회부터 산업화 연계 위해 광주디자인센터 주관

광주비엔날레의 도시문화 파급효과

○ 광주폴리

-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시작
- 폴리I 역사와 현재를 잇는 광주옛읍성터 복원 11개의 폴리
- 폴리II 인권과 공공공간 8개의 폴리
- 폴리III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 11개의 폴리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

- 2014년 11월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을 기반으로 지정
- 광주시는 광주공원 주변에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중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홀로그램 극장, 미디어아트갤러리, 미디어아트 놀이방,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중

국내외 주요 언론매체들의 관심과 평가

- '글로벌 수준의 전시를 보여주는 아시아에서 영향력있는 비엔날레'
(아트 인 아메리카/2008.12월호)
- '서구 중심의 미술무대가 아시아로 이동하는 중요현상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 차이퉁/2012.9.27.)
- '한국민주주의 서막에 돌아난 광주를 위한 대형 캔버스...'
(가디언/2012.9.25.)
- '세계비엔날레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선정한 20대 비엔날레 중 광주비엔날레 5위'
(아트넷/2014.5.19.)
- 미술전문가 20명이 꼽은 20세기 한국미술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전시 공간과 인물, 미술관은 '국립현대' · 전시는 '광주비엔날레'
(경향신문/2015.8.4.)

2018 제12회 광주비엔날레

○ 주제어 :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

지정학적 경계 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측면, 심리적, 감정적, 세대 간의 경계와 경계 없음, 경계 안, 경계사이 등에 대해 다가적인 시각으로 접근. 상상력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현실과 다른 세상,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를 위해 영토를 구분 짓는 여러 경계 속 그 안에 숨겨진 공간을 찾아나서는 긴 여정을 다층적인 전시로 구성

○ 기간 : 2018.9.7.~11.11(66일간)

○ 장소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미술관, 역사적 공공장소 등

○ 전시기획 : 다수 큐레이터

제4강좌 : 문학

'광주 5월의 시'의 문학적 항거

-호남 시가의 여성화자를 원용하여-

채 희 윤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소설가)

私說, '광주 5월의 시¹⁾'의 문학적 항거

- 호남 시가²⁾의 여성화자를 원용하여 -

채희윤(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소설가)

첫째, 변명을 검하여

본고는 표제에서 밝혔듯이 매우 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사실상 어떠한 대상에 대한 문학의 장르적 우선권이라든지, 텍스트적 우위란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 왜냐하면 창작품이란 말 그대로 한 작가의 개인적 특성, 즉 개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개별성을 지닌 작품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독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제안 받았을 때, 내게 주어진 자유로운 선택권을 이해했기 때문에 수용했다. 그럼으로 제재(題材) 역시 편하고 자유롭게 선별할 수 있고, 또 대상자들이 문학전공자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흥미로울 수 있는 '내용'을 고르다보니 이렇게 거의 역전³⁾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논지가 거슬리더라도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너른 양해를 구한다.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 중 략 >

1) <5월의 시>라는 시동인이 현재 광주에 존재하고 있고 활동 중이다. 사실 "5월시"라고 고유명사화 시키고 싶었지만, <5월시> 동인 시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5월의 시"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2) 호남시가라고 다소 넓게 지칭하는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노동요에서부터 시조, 가사는 물론 호남한 시(詩)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비단 호남 시간뿐 아니라, 영남의 시가에도 여성화자의 목소리는 상당하고, 사실상 우리나라 시가의 공통성으로 보아도 좋다. 특히 호남시가에 있어서 여성화자는 두드러지고, 그 기능 또한 독특하기 때문이다. (강진옥, 박명희, 박영민, 안대희, 조세형-가나다순으로- 등의 연구 참조)

3) Doxa는 사실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상사나 지성사, 여타의 발전사를 훑아보면 이러한 억지스러운 생각이나 주장이 우리 문화와 문명을 선회시키거나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여보 당신을 기다리다가
문밖에 나아가 당신을 기다리다가
나는 죽었어요..... 그들은
< 종 략 >

아아, 여보!
그런데 나는 당신의 아이를 벤 몸으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여보!
< 이하 생략 >

<김준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인용시는 필자가 아는 한 광주의 5월을 문학적으로⁴⁾ 대응한 첫 작품일 것이다. 엄혹한 시기에 이 시를 발표함으로써 이 시인은 계엄군에게 끌려가 모진 고난을 당했다.

이 시는 그 저항정신과 투철한 고발정신 및 거의 선동에 가까운 매서운 톤을 가지고 있어서, 남성성이 도드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여성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슬픈 사연을 슬회하게 하고 있다. 거의 희랍극에서 코러스의 기능이거나, 브레히트의 연극에서 볼 수 있는 異化효과와 비슷하다. 물론 이런 기법이, 이 시가 본래적으로 갖는 비극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느냐는 나중의 일이다. 본고에서는 여전히 호남시가가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여성화자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필자는 왜 "5월 광주"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 시였으며, 왜 굳이 여성화자를 동원했느냐하는 개인적인 관심에서 이 강의시간의 문을 열겠다. 매우 사적이고, 억지 논리가 판을 칠 것이라는 여러분의 예단은 어느 정도 맞을 것이다. 또 여러분이 문학연구자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끔씩 눈속임도 할 것이다.

둘째, 문학에서 지역이라는 것,

살아 있는 사람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마셔야 할 이 잔

4) 문학적이라는 의미는 본고에 맞게 문학의 장르적 특성이라는 것과 문학이라는 예술적 행위라는 좁고 넓은 의미 모두를 망라한다. 그러므로 독자들에게 전달된 <문학 Text>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5월 광주에 대하여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수에게 문학적 장르로서 향유되는 문학작품의 소통구조까지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했다.

너희가 흘러야 할 이 피
<이하 생략>

(선명한 광주의 예수·1)

브로델(Fernard Braudel)은 그의 저서 『역사학 논고』에서, '3중 구조' 이론을 내세운다. 그의 '3중 구조'란 ㉠ 지리적 환경을 기본 향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 조건 위에서 ㉡ '집단의 운명과 전반적인 움직임'이 형성되는 것을 전제하고 ㉢ '사건, 정치, 사람들'을 파악하는 관점으로 한 지역을 사회학적 특성들을 다룰 대에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다.

이에 따르면 호남을 기본향으로 만들면, 호남사람들의 운명은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게 되고, <5월 사태>를 만들어 정치적 이니시아티브를 쥐려던 그들에게 오히려 '광주 교문', '서로 상대성'등으로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5월 광주>를 만들어낸 우리 '호남인'들을 차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 지역문화, 혹은 지역문학이 그렇게 격절스럽게 독특한 특성들을 보여주라고 한다면, 지난한 일이다. 그러나 조동일은⁵⁾ 지역공동체는 관념이 아닌 생활의 영역이며, 비록 "동질적인 민족이 지방에 따라 다른 삶을 이룩하여 오면서 문학의 전통을 각기 다르게 가꾸어온 지방문학은 현대의 분권화를 통한 중심의 해체와 더불어 가장 긴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서 그는 "한국지방문학을 논할 때, 제주, 호남, 영남이 특히 중요하며"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제주 영웅서사시, **호남시가의 여성화자, 지리산의 의미해석**, 영남의 인물 전설"이라고 주장한다.

지방문학 고유의 특색은 유종호에게서⁶⁾ 더욱 분화되어 나타난다. 그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시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그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속의 묵계와 관습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한 낱말은 지시적 의미 이외에도 제각기 특유한 함축을 가지고 있다. 이 함축도 그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의 동의와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고 주장하며 좀 더 나아가 그는 지방어, 특히 방언에 대하여 방점을 찍으며, "유아기 때 체득한 기층언어일수록 함축과 함의는 풍요하고 또 강렬하다. 심층에 자리하고

5) , 『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5~8.

6)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13. pp.41-195. 이 곳 저 곳.

있어 그 호소력도 강하게 마련이다. 기층언어는 사람이 위기상황에서 소리치는 개인적 차원의 <사투리>이기도 하다.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의 정감과 태도를 결정하는 심층언어인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기층언어가 동시에 거래의 생활과 밀착된 토착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위 표준어라는 공질 궤도에 있지만 지역적 토착어는 어느 지역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언어로 이루어진 문학에서만 국한되어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다른 예술장르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나는 “호남문화(학)”와 “남도문화(학)”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南道가 湖南보다 약간 넓은 범위를 지닌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지춘상), 거의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간주한다.⁷⁾ 그런 입장에서 호남, 남도문화는, “남도지방의 향토예술은 그 지역의 만중생활에 두텁게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국 일대에 전파되어 한국적 예술의 특징을 형성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정병호⁸⁾나 「남도문화 특질론」이라는 글에서 ‘예술성, 풍류성, 민중성’으로 정리한 지춘상 이래로 별 이견 없이 수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예술성은 판소리, 무가, 잡가, 농악, 민요 등 민속예술의 활발성과 도예와 서화 등 미술의 발달, 시조와 가사, 현대시 등 시가문학의 수준에서 찾아진다.”고 주장한다. 좀 더 나아가서 이러한 호남 문화예술의 잠재력을 논하면서, 호남 문화예술의 잠재력을 ‘자연친화성’, ‘보편성’, ‘기층성’, ‘실용성’, ‘풍류성’, ‘응용력’ 등 여섯 가지로 들었다.⁹⁾ 여기에서 특히 ‘자연친화성’은 동양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동양적 사고관이란 서양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¹⁰⁾

위의 여러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에 있어서 지역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지역에 따라서 그 미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더불어, 미가 주관성의 측면에서 판단되는 가치라고 볼 때, 이러한 다양한 분화는 당연한 것이었다. 나름대로 발전되어 온 호남문화는, 심지어 회화에서도 서정성이 확대된다. 서정성은 서사성과는 다르며, 그것은 호남시가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며, 그런 이유로 호남시가의 여성화자의 문제는 오늘 매

7) , 『남도민속학개설』, 태학사, 1998, p.12. 육자배기토리의 분포, 모정의 분포, 전라도 방언의 사용 등을 기준으로 삼아 계룡산 이남에서 섬진강 이서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정병호, 「남도 민속예술의 특징」, 『한국민속학』 vol20 no.1, 한국민속학회, 1987, p.203.

9) , 「호남 예술문화의 전환과 지향」, 『호남문화연구』 제30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2, pp. 13-19. 여기 저기.

10) 최근 홍성담은, 필자와의 북-콘서트에서 5월 정신은 “농민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광주는 군사정권 정부의 소외와 차별에 의하여, ‘덜 도시적’이었으며, 또 호남이 道인 점을 주목하며 ‘살아남은 두레정신’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부마항쟁의 실패는 ‘기 산업화 사회로 이행된’ 데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뒷부분은 작가의 추정임.

우 폭넓고 깊이 연구되기에 이른 까닭이라고 본다. 호남시가가 중요한 것은 한국 시가에서 호남시가의 위치는 과히 절대적이라고 선언적 판단을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¹¹⁾

물론 시가연구만이 호남문화나 예술을 논하는 목표가 아니다. 문학사에는 통사와 단면사가 있다. 사실상 통사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했다면 호남인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자하는 호남정신의 정의가 가능했을 터이고, 영남의 정신의 범주화도 가능했을 것이다. 본고 역시 당연하게 한 단면사, 그것도 매우 서투른 단면사임을 다시 강조한다.

셋째, 문학 갈래 특성의 의미

사랑하는 오빠

사랑하는 조국의 총칼에 찢겨

5월 푸르름 한가운데가 질퍽이도록 (김해화, 누이의 헌혈가)

김흥규에 따르면, 문학은 현상 세계의 안과 밖을 모조리 껴안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형상적 인식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을 논하는 것은 오늘의 삶에 대한 적극적 인식 추구 방법이자, 우리의 현실에 실천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라고 본다.¹²⁾ 이는 환언하자면, 문학 텍스트 안에서는 우리는 현재와 과거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 특히 시가(詩歌)는 가장 으뜸 되고 가장 오래된 갈래이다. 시가 산문보다 앞서 나왔다는 것은 대체로 시인할 수 있는 소리다. 한 사회의 주요 관심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시가 산물을 앞섰으리라는 것은 능히 추측할 수 있다. 그 증거로는 여러 종교 의 경전을 살펴보는 것이 그렇고, 서사시의 형태 역시 그러한 점에서 유종호의 견해는 옳다.

한편, 갈래란 단순히 문학 텍스트의 형식적인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갈래란 일정한 군집의 작품들이 공유하는 문학적 관습의 체계이며, 개별 작품의 존재를 지탱하는 초개인적 준거의 모형이다. 갈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11) , 「호남시가의 원류에 대하여」 『배달말』 6호, p.187

단가에 있어 송 순, 임 제, 정 철, 윤 선도, 극가에 있어 송 흥록(興祿), 박 만순(朴萬順), 박 유전(朴裕全), 이 날치(李捺致), 권 삼득(權三得), 신 재효(申在孝), 진 채선(陳彩仙) 등은 각기 해당분야에서 이름을 날렸을 뿐 아니라, 한국 시가사에서도 높이 평가 받는 작품(작가)들이다.

12) 김흥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8, p.13.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¹³⁾ 물론 갈래가 어떤 일정 형태의 작품들을 완전무결하게 귀일시키는 특성·원리의 조직체라기보다, <친족적 유사성>을 지닌 다수의 작품에서 추출되는 범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가는 모든 문학 중에서도 가장 私的이고 개인적인 양식이다. '서정(抒情)'이란 명칭대로 시는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그리는 문학이다. 시를 1인칭의 문학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처음부터 시의 언어는, 따라서 사람의 투박하고 절실한 정감을 토로하는 직정의 언어로서 생활에 밀착된 말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서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시는 서정을 그 바탕으로 쓰여 진다.

서정이란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충동과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논리나 사고적인 측면에서 보다 직관과 감정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로 "격렬한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서정시"라고 한다. 이런 입장에서 서정시의 정조인 직관과 감정은 이성과 논리에 대응되는 여성적인 패러다임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가에서는 여성적 목소리가 많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위에서 인용한 시 두 편 모두가 여성적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필자의 논지의 중심인, 호남시가의 여성화자와 그것의 "5월의 시"와의 관계성은 그 근거를 최소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가의 전단계인 민요나 노동요 등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정한기의 「영호남 지역 <논매는 소리>에 나타난 애정의 양상과 배경」이나 서영숙의 「서사민요의 지역문학적 성격: 충청지역을 중심으로」를 살펴보면 이 모든 지역에서 여성화자의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서 여성화자의 빈도나 여성 목소리의 내용과 강약이 있음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는 것으로, 시문학에 있어서 여성화자의 문제는 거의 전국적으로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주지하다시피 여성문학 창작자가 극히 일부분으로 국한되었던 우리나라에서, 여성작가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노래한 시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남성화자가 그들의 시가에 여성화자를 등장시킨 것이라는 것이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13) , 앞의 책, p.30

14) 고정희, 「고전시가 여성화자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문학연구』, 15집,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너러신고요
어기야 존 대를 드대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논 대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정음사>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면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예 느려오니
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디 삼년일시
연지분 잇너마논 놀 위호야 고이 홀고
묵음의 미친 실음 텃텃이 빠혀 이셔... <송강, 사미인곡>

푸코는, 『성의 역사1』에서 “권력 관계에서, 성적 욕망은 가장 많은 술책에 이용될 수 있고 가장 다양한 전략들을 위해 거점이나 연결점의 구실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남녀 구별이 엄격했던 우리나라에서 남성화자들이 그들의 시가에 여성화자를 내세웠다는 것은 푸코의 지적처럼 ‘다양한 전략’을 위해서이다.

고정희의 지적처럼 첫째, 남성인 자신보다 우월한 누군가 앞에서 무력한 타자로 가장하기 위해서나 둘째, 작가의 gender는 텍스트의 의미와 유통에 결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나 셋째, (송강가사에 국한해서 말하고 있지만) 조세형처럼 남녀의 구별과 대립을 넘어 심리와 윤리, 가시적 세계와 신화적 세계가 합치되는 전일성의 획득을 위해서 일수도 있다. 또, 남녀의 정을 말함에 있어 여성의 정감으로 말하는 편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김만중 식으로 화자론도 있을 것이다.

花易落 꽃일랑 지기 쉽고
月盈虧 달일랑 차면 기울어
莫將花月意 꽃이랑 달이랑 가져다가
枉比接心期 이내 마음 견주들 마오
郎君還似涓江水 임의 정이 도리어 대동강 물 같은지
不爲芳華住少時 꽃피어 향기로운데 멈추질 않소
<임제. 『林白湖集』 卷1, 「代箕城娼贈王孫」 三五七言 >

형태에 있어서 비교적 짧은 시가에 있어서, 화자의 기능은 사실상 시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시 속에 여성화자를 등장시킴은 결국 이지적(理智的)인 것보다는 주정적(主情的)인 면과 가깝다. 남성이지만 자신의 소회를 간절히 전달할 목적이 있을 때나 정적(情的)인 호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주로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 왔었다. 특히 “여성의 목소리를 내며 소위 말하는 ‘여성정감’의 시문을 산출해 낸 일군의 문인들이 있으니, 거기에 호남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음은 시사할 바가 크다”¹⁵⁾ 본 것 역시 본고의 방향과 비슷하다. 어떤 남성작가들은 여성화자를 텍스트의 전략적 측면에서 사용하는 면이 많지만, 사실은, 시의 화자론(話者論)의 궁극은 텍스트의 독자성 또는 개별성을 규명하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인간 보편의 비밀에 대한 해명”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¹⁶⁾

넷째, “5월 광주”의 문학적 대응, 왜 시인가?

< 생략 >

이 낫을 받아

칼날을 거두소서

묘지번호 6번 박금희

생멸 나이 열일곱

전남여상 3학년

헌혈하고 나오다가 총살당한 년

(고정희 장시집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중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인생」)

위 인용시는 시적 대상은 여자임에 분명하지만 화자의 목소리는 중성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년”으로 반복되는 전편을 읽어보면 화자가 여자이며, 그것도 무녀(巫女)라는 것을 쉬 알 수 있게 된다.

무녀는 신에 가탁(假託)하여 진혼을 한다. 서사무가는 그래서 노래이지만 이야기이고, 그러므로 장시(長詩)의 형태를 취한다. 상대적으로 긴 이야기 식의 담화는 여성의 담화이다. 내가 노래는 하지만, 나는 몸주 신에게 입을 빌려주기만 할 뿐이요, 말의 모든 것은 인간인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존재인 신의 영역에 속하므로, 나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구속

15) , 16세기 호남한시의 여성화자 유형과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0집, 2010.

16) 조세형, 「송강가사에 나타난 여성화자와 송강의 세계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집, 2002년.

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이다. 더구나 내 몸주는 남자일 수도-신의 성적 구별-있으므로 그 목소리는 중성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눈동자 속에 가득한 꽃
그 중 장화홍련을 읽는다
< 중략 >

홍련은 마구 뛰었다. 어느 낯선 민가의 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기다리던 장쇠는 이미 칼을 거두었다. 안개가 덮여왔다. 자욱히 숨 막히게 그녀의 치마가 바람에 날려 다녔다.

<이하 생략>

(최두석, 장화홍련) 1982

가탁도 불가능 했을 경우, 시인은 이야기를 민속의 설화를 동원한다. 전래의 민속엔 우리가 투영되어 있다. 우리의 원형질, 용이 말한바 집단무의식이 작동되고 있다. 그것도 억울하게, 한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 저승에도 못가는 가장 비참한 假死의 상태로, 귀신도 사람도 사람도 되지 못한 원혼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 수많은 귀신담에서 여성 귀신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한국문학의 해석의 열쇠를 恨으로 간주한 것은 그 해원을 요구하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은 현실에대한 정당한 해답의 요구이다. 이는 '광주 5월'이 지금도 해원되지 않은 것과 비견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성화자를 내세운 이곳 시인들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자국민의 학살이라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현실 앞에 광주- 호남문화권의 중심축-는 함몰되어 갔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인간의 조건에서 제외되어 버린 번제의 제물이 되어 버린 코마상태였다. 80년 광주가 그랬다. 살아 있으나 죽어버린 자, 눈으로 보지만 본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정신적 사살을 당한 자들이었다.

모두 병어리가 되었고, 소경이 되었고, 걸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서, 사회적 금치산자로 낙하하는 순간에 나타난 문학적-아니, 예술적-대응이 있었다. 그것이 들머리에 인용된 김준태의 시였다. 사실상 '5월 광주'에 대한 최초의 작품이 사멸되어 가는 호남 사람들에게 죽비가 되어 낙뇌처럼 떨어져 내렸을 것이다.

< 前 略 >

꽃들아, 지금
네들 가슴 닫고 웃고 있질 않느냐
젊은 머스메 지집애들 짝하여
흥건히 쏟은 핏줄기를 짓이기고 있질 않느냐
아하, 그대 연약한 꽃들의 영혼아
분노로 응결지운 조국의 꽃향기야
누구나, 꽃을 밟은 우리는 누구나

< 後 略 >

(조진태, 일어서라 꽃들아)

이어서, 80년 8월 광주시내 전역에 유인물로 살포된 시가 나타났다. 얼어붙은 금제의 시대, 군사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갈을 물린 그 시기에 시가를 통하여 '5월 광주'는 생명을 찾는 작업에 나서게 되었다.

셋째 장에서 논했던 바와 같이 호남은 시가문학의 정점을 이룬 곳이었으며, 시의 본령은 서정이다. 그리고 서정의 특성은, 인간의 근원적인 충동과 욕구에서 비롯된, 격렬한 감정과 사상의 표현하는 것을 그 영역으로 한다. 여기에 전장에서 살짝 언급했던, 아직은 농촌공동체적 성격이 강했던 호남지역은 두레 정신의 발현으로 나와 남의 구별이 각별하지 않았고, 이러한 정신들이 더욱 일체감을 공고하게 하였을 것이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공동체적 정신이 '5월 광주'를 완성시켰고, 86년 서울의 봄에 이르기까지 소위 한국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농민공동체적 정신인 어머니의 마음으로 표상되는 고향의 아늑함, 민주주의의 성지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일군의 시인들의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한 문학적 대응이었다.

사실 시 속에 여성화자를 등장시킴은 결국 이지적(理智的)인 것보다는 주정적(主情的)인 면과 가깝다. 남성이지만 자신의 소회를 간절히 전달할 목적이 있을 때나 정적(情的)인 호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주로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 왔었다. 소위 가탁이다.

서정시는 직선적이며 열정적이며, 그래서 언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를 섬기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김옥동은 "서정시는 시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을 고조된 상태에서 표현되기 일쑤이다." 고 갈파한다. 심지어 사르트르는 "독자를 인간 조건에서 끌어내어 독자로 하여금 신의 눈을 가지고 뒤집어진 언어를 보도록 유도하는 시의 세계"에 대하여는 그의 참여이론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맹목적일 정도로 직진적이다. 유

종호의 지적대로, “위험이나 난경(難境)에 처했을 때 사람은 닥치는 대로 아무런 도구나 움켜잡는다. 위험을 넘기면 그것이 망치였는지 막대기였는지도 기억해내지 못한다. 전혀 모른 채 움켜잡았던 것이다.”¹⁷⁾ 억압에 의하여 자의식이 한 좌절된, 훼손된 세계에서 뒤틀린 진실 앞에서 시인의 시적 서정은 이렇듯이 행동한다. 미구에 닥칠 위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움켜잡은 도구가 뭔지도 생각나지 않을 듯이.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것은 시적 기법일 것이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호남시가의 전매특허인 여성화자를 원용하기도 했다. 위의 고정희 시에서 살폈듯이 假託의 기법에 있어서, 호남의 시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더 능숙했고, 문학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게끔 肉化되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내재화된 호남의 시인이었기에.

17) , 앞의 책, p.87.

제5강좌 : 공동체

기적 아닌 날은 없다.
-공동체 운동의 소소한 사례들-

강 위 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대표)

기적 아닌 날은 없다.

-공동체 운동의 소소한 사례들-

강위원 (광주 주먹밥은행 은행장, 여민동락공동체 살림꾼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1. 머리말

운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런데 자못 떨린다. 아직 많이 거칠고 부족하다. 겸손이 아니다. '삶'과 '공동체'에 대해 누군가에게 웅숭깊은 말씀을 나눌 만큼 영글지 않은 탓이다. 공동체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이나 현황에 문외한인이다. 특히 광주를 배경으로 한 공동체 관련 얘기는 더욱 아는 바가 없다. 성현의 말씀에, 몸으로 살아낸 얘기 외에는 어디 가서 입으로만 수다 떠는 일을 절대 금하라 했거늘, 제가 이를 익히 알면서도 다시 후회할 바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다. 그만큼 강의라는 이름으로 뭔가 고백하는 일처럼 무서운 일도 없다. 결국 특별한 얘기를 그럴싸하게 풀어내는 지적 호기보다는, 제가 사는 삶의 방식과, 함께 하고 있는 농촌공동체인 '여민동락' 그리고 5년 동안 관장을 했던 광주의 '더불어樂', 최근 설립한 광주 주먹밥은행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갈음하려고 한다.

2. 광주다움을 위한 공동체 생태계 실험 -광주 주먹밥은행

광주 공동체정신의 상징 '주먹밥'

광주주먹밥은행은 80년 오월 광주의 공동체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에서 모티프를 얻은 이름이다. 소외된 이웃들이 의지할 수 있는 주먹밥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이웃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십시일반 기금을 모으고 필요한 이들에게 빌려주는 '마을 은행, 이웃 대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주먹밥은행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은행이다. 주먹밥은행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고, 아쉬운 소리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이웃들을 위해 필요한 자존 은행이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이 아닌 광산구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본재산을 마련해서 설립한 민간 재단이다. 전체 회원 4600명에 이르고, 연간 민간 기금 20억 원 규모로 광산구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복지의 엔진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동체복지 모델이 되고 있고, 기존 행정과 제도로 실행하지 못하는 다양한 공동체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가난한 이들을 돕는 복지재단이 아니라, 주민력 자치력 복지력을 키우기 위한 경계 없는 나눔을 통해 공동체 강화의 지원군이 되고 있다.)

최대한도 30만원의 '3무 착한신용대출'

주먹밥은행은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겪는 금전 문제와 경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이 대출금을 1년 이내로 상환하게 된다.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주먹밥은행은 기초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대출금 상환 계획과 상환 의지를 확인한 후 대출금을 지급한다. 이자도 담보도 보증도 요구하지 않는 말 그대로 '3무 착한신용대출'이다.

금융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먹밥은행은 대출금의 상환을 강제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유지되는 믿음 은행이다. 때문에 대출금 상환과 예치금 보호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부실의 위험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대출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어 예치 이웃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주먹밥은행은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와 협업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는 모든 이웃들이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과 협력하여 복지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투게더광산의 복지망도 활용한다. 명실상부 공동체 생태계 강화와 금융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이다.

마을이 은행, 이웃이 대출

예치 이웃들에게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이자는 투게더광산 나눔문

화재단에 재 기부되어 다시 주먹밥은행에 지정 기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주먹밥은행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마을 은행, 이웃 대출'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의 기대와 응원 속에 시작된 주먹밥은행. 이제는 이웃들의 경제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공동체로, 금융복지의 새로운 모델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3. '더불어 樂' 복지관을 공동체의 마당으로

복지, 담장을 넘어 마을로

광주 광산구 노인복지관 더불어樂은 도시공동체의 한 사례로 특별한 경우다. 이용자 중심의 회원제 복지관 건물을 마을 중심의 공동체 마당으로 확장한 보기 드문 유형이기 때문이다. 복지관의 미션은 바로 '사람중심 마을거점 공동체복지'다. '마을에서 어르신 한 분을 잃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는 표어를 화두로 삼고 있다. 어르신들을 단순히 복지재정의 소비자 혹은 수혜자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공동체의 당당한 주체로 '예우'할 것인지를 여부, 그것을 복지관의 철학과 관점을 바로 세우는 기준으로 삼는다. 어르신들이 지닌 경륜과 자산, 재능과 지혜를 지역사회를 위해 두루 쓰일 수 있도록 거들고 돕는 일,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와 기관, 마을 모임들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일을 복지의 근본에 둔다.

복지, 소유에서 공유로

나아가 복지관 담장을 허물고, 복지관이 지역거점 다기능 복지의 역할을 해 갈 수 있도록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긴다. 낮에는 노인복지, 밤에는 주민들이 이뤄가는 마을복지, 주말에는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는 청소년학교를 통해, 그야말로 온 마을이 복지관을 거점으로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이 만나는 공동체 복지의 광장을 만들고 있다. 땅 사고 건물 짓는 토건복지 대신 기존 건물의 이용공간을 확장하여, 그 비용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중심 복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른바 '밤에도 열린 복지관', '주말에도 열린 복지관'은 특정 대상의 소유에

서 마을 전체의 공유로 복지관을 개방한 사례다. 담장을 낮추고 운영인력만 갖춰지면 복지관 하나가 온 마을 주민들이 사립문 열고 접시 돌리며 마을공동체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르신들의 자주적 결사

그래서다. 복지관 1층 휴게실을 개조해서 마을도서관과 마을찻집을 만들고, 이를 지역에 나눴다.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 지원 없이, 어르신들 스스로 십시일반 나눔과 협동의 힘으로 만든 작품이다. 379명의 어르신들이 기금출연으로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결사를 하셨다. 시공설계와 감독 또한 건축 일을 하셨던 어르신 한 분의 재능기부로 이뤄질 만큼 예사롭지 않은 모색이었다. 밤과 주말에도 문을 열고 지역주민 누구라도 이용하는 마을도서관과 마을찻집, 이렇게 문을 연 마을도서관에서는 어르신 글짓기교실, 작가초청강좌, 어르신들과 초중고 학부모 독서회와의 만남, 공정무역토크쇼, 어르신과 지역주민 작품 전시회, 작은 음악회, 휴먼 다큐멘터리 상영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 혹은 기업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신으로 어르신들이 만들어 낸 쾌거다.

광주전남 협동조합 1호

어르신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가가 마련해 주는 노인일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르신들 스스로 자립형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공헌활동도 해보라며 '더불어 樂'이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당연히 적잖은 출자금도 모았다. 그래서 두부공장도 짓고 팔죽가게도 열었다. 이미 협동조합의 순례지가 되고 있고 광주전남 협동조합 1호로 지역협동조합의 선구자로 정착했다. 머지않아 낮 시간에만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밤에 개방하여 협동조합으로 도농직거래 밥집을 운영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이렇듯 공공건물을 특정 대상의 '소유'에서 마을의 '공유'로 바뀌가는 관점의 변화가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내고 있고 사람중심 마을거점 공동체복지의 공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4.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농촌의 현실은 암울하다. 수입 개방의 파고와 해마다 널뛰기하는 농·축산물 가격 등은 농민들을 절망케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동체' 운동이 태동하기도 했다. 상당수가 실패로 돌아갔다. 지역민과 호흡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폐쇄성이 큰 원인이었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여민동락(與民同樂)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주민 중심의 자주, 자립, 자치의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삼은 이유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작고 가난한 비영리단체다. 소박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동행중이다. 폐교 위기의 시골학교를 살려가려 애쓰면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농촌의 교육과 문화, 복지와 경제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일터공동체다.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복지 너머의 복지'를 꿈꾼다.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를 짓고 밥을 먹으며 작은 시골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농촌의 삶터를 새롭게 살리는 지역일체형 공동체를 지향한다.

1) 할매손 송편공장부터 동락점빵까지

2009년 '여민동락 할매손 모싯잎 송편공장'을 설립했다. 마을 어르신 13분이 참여해 떡을 만들었고, 40여분은 작목반을 꾸려 모싯잎을 생산했다. 지역이 쌀 중심이다 보니 일자리가 거의 없었다. 모싯잎 송편을 지역특산품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모싯잎 재배를 고민했다. 지천에 모싯잎이 널려 있었고, 재배도 비교적 쉬웠다. 농협에서 대출 받아 모싯잎 송편 공장을 세웠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판로가 확대됐다. 처음에는 여민동락 후원자를 대상으로 판매했지만 쇼핑몰을 만들고 지역축제에 참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불특정 고객을 확보했다. 현재 3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의 노동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관계가 복원됐고, 삶이 풍성해졌다.

마을가게도 있다. 사람과 사랑을 잇는 마을가게 '동락점빵'이다. 묘량면은 낙후돼 있어 구멍가게도 없었다. 구멍가게는 주민들의 염원이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구매난민'을 위해 탑차를 이용해 이동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사회서비스형 유통사업단을 만든 셈이다. 다양한 생필품을 공급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구매하고 수익은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다. 2014년 동락점 빵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전남지역 1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역주민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든 복지든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여민동락의 철학이 담겨있다. 동락점 빵 이동장터는 여민동락공동체 마을살이의 꽃이다. 1톤 트럭에 생필품을 싣고 차량방송을 하며 마을과 들녘을 돌아다닌다. 매주 장터에서 만난 주민들이 300여 분 가량이다. 그만큼 사연도 많고 눈물도 깊다.

한 어르신은 소화가 안 된다며 '사이다(페트병)' 한 병을 달라신다. 집까지 가져다 드리며 "자꾸 소화가 안 되시면, 사이다 대신 '약'을 드셔야 헛디."라고 당부까지 하고 나온다. 일주일 뒤 다시 만난 어르신, 다짜고짜 집으로 끌고 가신다. "아니 당최 안 된 당께. 한번 봐주소잉." 그때까지도 텔레비전 리모컨이 안 된다든가, 가전도구가 안 되나 보다 했다. 그런데 아뿔사! 어르신께서 내민 것은 지난주에 사셨던, 그 사이다였다. 사이다 뚜껑을 못 열어서 아직까지 못 드셨다는 말씀. 며칠 전에는 망고주스를 사셨다. 이번에는 바로 뚜껑을 뚫 다음 다시 잠가 드렸다. "어르신! 망고주스 제가 따냈으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따라 드세요~" 이렇게 산다. 동락점빵은 단순한 이동장터가 아니다. 협동조합 경제사업처럼 보이지만, 집집마다 주민들의 살림을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는 농촌복지의 과정이기도 하다.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과 동행하며 우애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평생을 농부로 살다가 이제 가장 작고 힘없고 가난한 생의 끝에 와 있는 분들이다. 충만한 삶을 기대할 순 없다 해도, 생의 끝자락에 외롭지 않게 기댈 어깨 정도는 옆에 있어야 마땅하다.

2) 협동조합과 농민 그리고 공동방아

올 해 수매가 폭락에 대한 대책회의 때 있었던 일이다."부모가 물려주신 땅으로는 네 명 식구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웠어라우. 농사량을 늘려야 살 것 같아서 땅 사고 임대하고 인자 논농사 120마지기요. 사람이 없으께 기계 사고 창고 짓고 하다가 도시에서 번 돈 다 바닥났지라우. 7년 지나 남은 건 빚뿐인디 쌀값마저 이라고 똥 값잉께 앞이 캄캄하당께요."농사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며 30년 가까운 도시생활을 접고 귀향한 지 7년차인 이장님의 하소연이다. 결국 도시녀인 아내가 농사 외 다른 일로 생계를 돕는단다. 더불어 행복한 농촌이 오기는 올까. 농촌에서 농사로 밥걱정 않고 사는 게 가능하기

나 할까. 그래서다. 2015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더불어 삶'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농민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어 쌀 수매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공동방아'라는 이름으로 마을 농가의 쌀을 도시의 회원들에게 연결하고 있다. 쌀 주문을 받아 매월 적당한 날에 방아를 짚어서 택배로 공급하는 일이다. 공공기관 몇 곳이 쌀 구입에 참여하면서 공동방아 수량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나락 매입에 대한 협의와 결정은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님들의 몫이다. 대부분 이사님들의 이사로 계셔서 가격결정이나 품질보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생태주의니 자연주의 농법이니, 소농과 고령농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농촌이니 하면서 안간힘을 써왔지만, 좋은 말만큼 현실은 호락호락하질 않다. 당장 농촌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민들의 전투가 가혹하리만치 처절한 탓이다.

협동조합 회의 도중 이사님 휴대전화가 울린다. 인근 마을에 사시는 고령농이신데 쌀값 걱정, 판로 걱정예 한탄을 하시는 모양이다. "어르신 걱정하지마쇼이잉. 내가 지금 어르신께 3,000원 더 쳐서 내줄라고 이야기중인께잉." "오매 오매 고맙네야. 뭘 일이당가. 그럼 자네만 믿네잉." 하고 끊으신다. 대화가 짹하디 짹하다.

3) 비닐하우스 마을보따리전

'장암골 마을보따리전'은 추수 끝나고 김장철 준비하는 딱 그 사이 열린다. 절기로 보면 입동(立冬)과 소설(小雪)사이다. 벌써 몇 해째 이어지고 있다. 서양식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이라 해야겠다."형편이 그렇게 간단히 준비하드라고잉." 처음엔 그러셨다. 허나 마을마다 분주하다. 간단히 준비해서 조촐하게 잔치를 열자는 소박함(?)은 늘 온데간데 없다. 모태다 보면 그때마다 판이 커지고 만다. 새로 김치를 담가 떡국 한 그릇 나눠먹자 했지만, 김치 담그는 일부터 예사롭지 않다.

며칠 전부터 부녀회장님 차 트렁크에 이 집 저 집 배추가 모인다. 흰 무도 보이고 빨간 무도 보인다. 누가 봐도 한집 채소가 아니다. 이장님은 감도 한포대 내놓으셨다. 재미난다. 하루 전 계란지단 부치고 가늘게 썰어서 담아냈다. 파도 미리 송송 썰어놓으시고, 김 가루도 빼놓지 않고. 소고기도 삶아서 얇게 찢어 냈다. 떡국 고명용으로 모두 손색없다. 향꾸네 모이려면 마을회관으로는 턱도 없다. 그간 품앗이학교에서 그린 그림도 전시하고 광주에서 초청한 공연팀의 전통춤과 판소리 공연도 봐야 한다. 밖은 추워서 엄두도 못

낸다. 그렇다고 그럴싸한 실내공간도 없다. 그래서 택한 게 비닐하우스다. 안성맞춤이다. 탁월했다. 늘 보던 곳이라 만만하고, 난방기 없어도 따뜻하다. 비닐하우스는 농부들에게 안방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집이다. 다용도 전천후 공간 말이다. 마을보따리 문화난장 행사로 곡식을 말리고 보관하는 농사 전용 공간에서, 이제 미술과 음악이 공존하는 공연장으로까지 탈바꿈했다. 손을 뻗어보니 춤사위를 방해하지 않을 만큼 공간도 제격이다. 품앗이학교 미술시간에 그린 그림도 걸고, 뼈뼉뼉 쓴 보따리전 축하 글도 걸었다. 한글실력이 일취월장한 어르신들의 시 한 편도 떡하니 전시했다. 여기저기 화기애애하다.“아따 월암댁 참 잘 그렸소잉.”. “우리 선상이 잘 갈쳐서 그라요.” 하며 대거리도 주고받는다. 배우와 관객이 따로 없이 마당극으로 이어진 판소리 공연은 비닐하우스를 최고의 절정으로 뜨겁게 달구고 만다. 누가 봐도 재미난 전시관이자 미소 절로 나는 공연장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렇게 산다. 농촌 식으로 말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세련되지 않아도 좋다. 그 안에 꾸밈없는 삶이 그대로 있으면 그만 아닌가.

4) 마을학교

여민동락공동체는 속칭‘복지재벌(?)’이다. 마을 곳곳마다 문어발처럼 마을복지센터를 두고 있다. 23개나 되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 마을회관이‘여민동락출장소’인 덕분이다.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을 마을복지문화센터로 만들어 마을공동체 안에서 주민들 스스로 우애와 협동의 복지를 이루도록 신명을 쏟는 일, 그게 바로 지역공동체가 여민동락에게 내린 마을복지 심부름이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일명‘장암산 마을학교’다. 여민동락 정면에 482m의 겸손한 높이로 병풍처럼 펼쳐진 산, 정상 일대가 평평해서 앞마당처럼 다정하고, 산세가 마치 물위를 떠가는 조각배처럼 생겨 주변의 다른 산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산, 그 산이 바로 마을의 정신과 기운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장암산(場岩山)’이다.

농한기 때 농촌마을은 마을회관이 시끌벅적하다.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한동안 병원에 다니시느라 못 나오시던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이니 마을잔치가 따로 없다. 건강체크와 건강체조를 한 뒤에는 민요교실까지 이어진다. 진도아리랑과 뱃노래를 배우고, 동네 누구댁 자녀 이야기가 줄줄 이어진다. 특별한 차림이 아니라도, 김자반, 동치미, 그리고 김치 얹어서 함께 준비한 점심밥상도 더불어 함께 하니, 더 이상 즐거울 수 없다.

궁극적 목표는 따로 있다. 이런 공감과 연대의 과정을 거쳐 장암산 마을학교의 꿈은 단연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완성이다. 이른바 마을회관을 싹틔줄 거점으로 삼아 마을별 대동회를 활성화 해 가는 것이다. 과거 촌락사회의 운영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자치적인 집회조직인 대동회다. 과거 대동회에서는 마을의 임원선출, 예산과 결산보고, 공유재산의 관리대책, 규칙제정, 공부(公賦)의 대책, 임원의 보수결정, 수리시설과 농로 등 마을 공동의 개발대책 등을 비롯한 마을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공동이익과 공동행위, 사회적 협동에 관한 문제가 토의, 결정되었다. 의사 진행은 촌락의 공식적 지도자인 이장이 주관하지만, 중요한 일은 유지로 불리는 비공식적인 지도자들과 미리 상의해서 대동회의 공론에 부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대동회를 바탕으로 대동경제, 요새 표현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새로운 농촌경제의 모델을 발굴 발전시켜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을학교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이러한 상호부조정신을 강조하여 사회적 협동을 강화하는 조력자의 역할이자 농촌마을의 희망을 설계하는 공동체의 학습장이다. 돈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공동체적 인간관계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한다. 장암산 마을학교는 여민동락공동체가 제시하는 공동체 중심, 마을복지의 아주 작은 시도다.

5) 행복한 퇴임식

송편 만드는 어르신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80세다. 73세부터 시작했으니 횡수로 8년차다. 가장 젊은 분은 69세, 대부분이 70대 중반이거나 그 이상이다. 농사는 이제 거의 짓지 않는다. 논농사야 동네 젊은 청년이 기계로 다 해주니, 쌀 사먹는다 생각하고 기계값을 주신다. 그런데 어르신들과 하는 일이 늘 그렇다.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 기능이 느는 게 아니라, 병원 갈 일이 늘다. 자연스럽게 후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들 아직은 정정하다고 하시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떡집에선 하루 만에 끝낼 일을 우리는 이틀 삼일 걸린다. 만드는 속도가 느려진 거다. 하루에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제조단가를 결정짓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떡 공장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얘기다. "우리는 할 만큼 했제잉. 벌써 7년이 넘었는디. 인자는 좀 더 젊은 것들(?)로 바꿀 때가 되었어. 빠릿빠릿한 젊은 새댁(?) 들로 말이여." 그래보야 60대다. 후임자를 찾는 일은 어르신들이 하시기로 했다. 그런데 후임자 구성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아직은 본인들 만한 사람들이 없단다.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하하.

10년차 세월이 가니 동락원 농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퇴임(?)하실 분들이 여럿이다. 다들 여민동락 일자리가 생길 때부터 함께 했던 어르신들이다. 평생 농사만 짓다 각종 만성질환을 안고 사시는 어르신들. 이젠 어쩔 수 없이 세대교체가 필요해졌다.“월급 받아서 손주헌티 봉투를 줬당께. 지난 번 설 때도 세뱃돈을 10만원이나 담았어라우. 어른 노릇 한 게 좋습디다.” 그 말씀들이 떠나질 않는다. 달인들을 위한 ‘행복한 퇴임식’이란 뭘까, 그게 고민이다.

6) 여민동락공동체의 헌법

여민동락공동체는 처음부터 자립과 자치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설립됐고, 지금도 그 헌법대로 활동하고 있다. 첫째, 노동과 생산을 통하지 않은 모든 외부의 기부와 후원은 반드시 그 십분의 일을 쪼개, 더 가난하고 후미진 지역과 단체와 시설에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되, 다만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는 재정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완벽하게 이룬 뒤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감당 가능한 자금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아이들을 도시로 유학 보내지 않는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본은 지역에‘사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작은 시골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주민들과 함께 교육과 문화를 살려가야 온전히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다. 넷째, 농촌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밥을 먹으며 농부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활동가 혹은 지역운동가라 자칭하면서 주민들 속에서‘헌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 함께 살며 주민들의 살림 모양을 닮아가고 농민들에게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하면서 온전히 마을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뢰와 학습이 사회적경제의 관건

이처럼 여민동락은 농촌의 경제 복지 교육 문화의 융복합적 접근과 사회적경제의 원칙에 의거해 마을공동체를 살려가고 있다. 여민동락 설립과정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관계를,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정능력을 출자하면서 시작했다. 여민동락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은 바

로 구성원간의 절대적인 '신뢰'이자 끊임없는 '학습'이다. 여러 난관도 있고, 일탈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관계의 축적을 통한 신뢰의 확인없이 공동체는 성공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신뢰의 확장은 끊임없는 학습에 기반하지 않고는 오래갈 수 없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월요학당'을 통해 학습하고 성찰하는 걸 게을리 하지 않는다. 공동체는 늘 갈등과 반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살림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절 통제하고 신뢰로 승화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학습과 성찰의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작고 소박하게 실천하는 협동조합

여민동락공동체는 지금 '동락점빵', '할매손 송편', '행복일자리 영농협동조합'을 운영한다. '노인주간보호센터'나 '학교살리기' 같은 복지와 교육활동 외에도 다양한 협동조합 유형의 사회적경제를 실천해 간다.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동업이다. 동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규모가 크고 사람이 늘어갈수록 그 실패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그래서다. 여민동락이 만드는 협동조합은 지극히 가난한 협동조합이다. 작고 소박하게, 마을에서 사는 주민들이 그 마을에 거점을 두고 만들어 가는 구조다. 사람중심 마을중심이라고 해야겠다. 큰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나 큰 위험없이 큰 행복을 추구하는 걸 목표로 한다. 행여 수익이 생기면 마을기금 혹은 지역사회 공유자금으로 축적한다. 뜻이 좋아야 그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분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당장의 성과보다 오래도록 길게 궁리하고 신뢰를 축적하는 관계망을 우선시한다. 그래야 온전히 사회적경제 혹은 협동조합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 된다. '사업'이 아니라 '살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좋은 뜻만 있고 '경영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영리기업 이상의 수고와 노동이 필요하고, 부단히 제도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부지런함을 보여야 한다. 워크숍이든 강연회든 아니면 관련 저서와 자료, 논문들을 접하고, 선진지 견학과 선구자들과 자주 어울려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공부와 경험과 신뢰, 나아가 마을 속에서의 관계가 깊어지고 쌓이다보면,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또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바로 협동의 힘이고 협동조합의 긍정성이라고 생각한다.

5.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공동체 생태계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제고다. 현장주체는 분명 민간이다. 민간의 결사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율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로 이뤄가는 공공성의 확장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 민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의 바탕이 없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가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일부 지방정부가 실적과 과속에 의해 공동체 생태계를 교란시킨 측면도 있어온 바, 민간을 행정행위의 하위체계로 인식하는 편파적 관점을 개선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자원을 배분하고 인력배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지방정부의 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민간의 공익적 사회적경제 활동을 거들어주고, 관행에 의한 저해요인을 제거해 주는 일이 기본이어야 한다.

둘째, 작고 강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초지자체는 현장형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고, 이를 광역지자체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점진적 단계를 거치는 게 맞다. 광주 광산구는 복지관 어르신들이 중심이 된 노인협동조합이 있고, 청소 환경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청소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를 모델로 전국적 영향력을 갖는 튼실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속에서 협동조합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셋째, 민관협력과 학습조직의 구축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했듯이, 사회적경제의 수준은 그 부서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신념이 있고,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적 역량을 갖춰야만 정책과 제도의 지원에 있어 다양한 민원대응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상식에 해당한다.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전문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사회적경제 행정동아리도 만들어서 두루 탐색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민간의 학습조직도 마찬가지다. 학습없이 진화없고 기록없이 축적없다. 행정은 민간의 학습조직을 지원하고, 민관이 함께 공부해 가면서 지역특성과 환경을 분석하고, 장치 중기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6. 우리의 이상은 마을공화국

마하트마 간디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에서 “인도를 살리기 위해선 70만 개의 마을공화국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마을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수준이 아니라, 마을이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장이라는 뜻이다. 나눔과 배려를 통해 복지와 마을이 만나고 공동체 복지와 공동체 문화, 나아가 공동체 경제와 교육이 이어지는 '마을공화국'의 완성, 그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복지와 자치의 새로운 접근이자 집단적 지향이다. 마을 안에서 자립과 자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는 마을공화국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동체복지'의 미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 보다는 물질이 최상의 가치로 대접받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줄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애와 협동의 여유는 찾을 수 없는 위험 사회에 처해 있다. 노동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생태환경의 위기는 보다 심화됐으며, 살림의 격차는 극도로 벌어졌다. 오직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맹렬하게 달리면서 개발과 성장에 몰두하는 동안 여럿이 함께 잘 사는 방법, 공동체 정신은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다들 행복한가? 우리 이웃들은 안녕한가?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오래도록 궁리하고 실천해 오고 있다.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으고 있다. 남녀노소 빈부강약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누구라도 차별당하지 않고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을과 일터를 만드는 일로 어울리고 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으로 보육과 교육을 바라보고, '마을에서 어르신 한 명을 잃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소신으로 복지를 접근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단순히 골목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범죄, 거짓은 사라지고, 사라진 마을잔치와 웃음과 놀이는 살려가는 변화된 마을과 지역, 그리고 그 바탕을 튼튼히 하는 방향에서 문화와 환경에 관심을 두는 추세다. 그 중심에 주민을 세우고 마을리더를 키워가며 풀뿌리 자치의 자연력과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람, 삶, 살림의 근본을 제대로 뿌리내리는 일을 우선시하는 지역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이다. 이제 다양한 범주에서 활동해 온 개별들의 실천력을 모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

사회적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협동과 연대의 살림살이 즉'사회적 협동 조합' 등의 주민조직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람이 사람답고 사회가 사회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보다 광범위한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우선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일궈갈 태세를 갖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선구적인 모범을 착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바람직하고 다행스럽다. 한 축으로는 협동조합을 통해 우리가 사는 마을의 자연과 인적, 문화적 자원들을 조사하고 체계화해 이를 바탕으로 마을을 위해 일할 사람을 키우고 도와야 한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삶터와 일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둔 공익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한 축으로는 마을 안팎에서 주민과 주민을 잇고, 시민사회단체, 기업, 자치단체를 연결하면서 여러 생각과 자원들이 어울릴 수 있는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나아가 자립과 협동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민들 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더 깊은 선의 뿌리'를 낙관하고, 좋은 사람과 좋은 체제의 선순환을 이뤄가려는 모양새를 갖추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 우리는 더불어 살고 싶다. 우리에게 온기종기 마을을 이뤄 온 동네가 너나없이 잔치를 열고 마음을 여는 소박한 꿈이 있다. 자치를 통해 복지를 완성하고 협동조합과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사람의 사람다움을 키워가고 싶다. 가족·세대 간에 할 얘기가 많아지고, 이웃의 삶이 궁금하고,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넉넉한 사람의 숲, 마을의 숲을 이루고 싶다. 그 마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 모이고 수다 떨고 꿈을 꾸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바짝 옆드려' 바닥에서 마을을 살려가고 있는 이들 안에 이미 그 꿈은 현실로 다가와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을공화국'이다. 그래서 바로 '마을공화국'이다.

제6강좌 : 도시재생과 폴리

도시재생과 광주폴리피

천 의 영

(경기대학교 교수, 광주 3차폴리 총감독)

광주폴리

Gwangju Folly 3

광주의 '맛'과 '멋', 일상 속 예술로 체험하다

GWANGJU FOLLY



▶ 폴리(Folly)

- 어원: '어리석은 짓'을 뜻하는 프랑스어
- 별다른 기능 없이 장식적 역할을 하는 조형물이나 건물
- 본래의 기능을 잃은 작은 건물이나 보이기 위한 장식적 목적으로 설치된 것

▶ 광주폴리(Gwangju Folly)

- 도시 속에서 파빌리온의 공간과 가로 시설물의 공공기능, 그리고 폴리의 기능적 장식적 역할을 아우르며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

주최 | 주관 광주광역시 | (재)광주비엔날레

추진배경

-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재생 수단과 접목, 도심 내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심거점 구축필요
-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를 활용, 광주만의 문화적 자산 창조
- 주민과 더불어 일상공간을 탈바꿈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활성화 기여

광주폴리 I 광주 옛 읍성터 복원, 역사와 현재를 잇는 광주폴리 (2010-2011)



광주폴리 II 인권과 공공공간 (2012-2013)



광주폴리III 도시의 일상성 - 맛과 멋 (2014-2017)



Gwangju Folly 3
광주폴리 3

Folly 3
폴리 3

View Folly
뷰폴리 · 보다

GD Folly
광주-네덜란드 폴리 · 건다

Cook Folly
쿡폴리 · 먹다

FunPun Folly
펀펀 폴리 · 즐기다

+ Mini Folly
미니 폴리

도시의 일상성 맛과 멋

총감독 _ 천의영

큐레이터 _ 유우상, 위진복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인 광주폴리 I·II 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대중성을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형으로 추진한 광주폴리III 사업은 4개 구성 유형 (View폴리·GD폴리·Cook폴리·FunPun폴리)과 서브 미니폴리 등 총 11개 작품으로 이루어져있다. 활용도를 상실한 市 건물, 구도심의 공·폐가, 건물과 건물 틈새와 벽면, 자동차통행금지 도로 등의 공간을 도시를 경험하는 일상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맛과 멋’이라는 도시적 체험 장치를 통해 광주의 색다른 맛의 문화 체험과 광주의 실험정신을 담아 예술과 미디어 그리고 시민과 산업을 연결하는 도시펌프의 마중물로서 도심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1

광주를 대표하는 두 얼굴을 전망하다 : 뷰(VIEW) FOLLY



리얼리티즈
유나이티드,
탐 에들러 & 안
에들러
독일

문훈
한국



작 품 명: **자율건축** Architecture of Aut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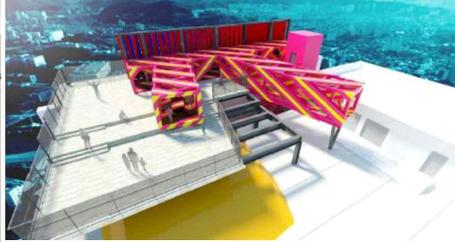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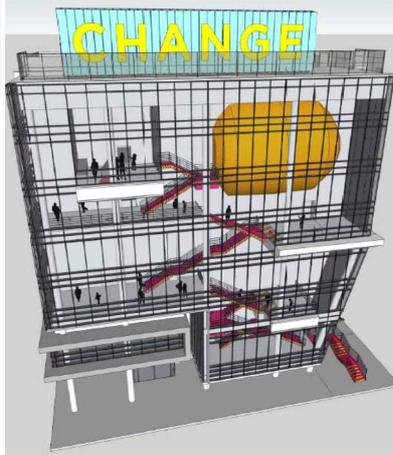
설치장소: 광주 동구 제봉로 96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참여작가: 문훈 + 리얼리티즈 ; 유나이티드 - 안 에들러 & 탐 에들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너편 전망대 폴리. 구도심 내 활용도가 저조한 市 소유 건물에 전위적인 건축가와 미디어 아티스트의 개성 있는 전망 폴리를 설치하여 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망대와 포토존을 제공한다. 삼각형의 트리비전 공작물(높이5.2m, 폭0.6m) 33개의 조화로 “CHANGE”를 표현하고 있으며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이 가지는 여러 용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바라보고 휴식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1

광주를 대표하는 두 얼굴을 전망하다 : 뷰(VIEW) FOLLY



공백 그리고 **색색의 스트라이프로 뒤덮인 계단**을 오르며 일상에 신비감을 더한다. 일단 정상에 오르면 광고는 예술이 된다. 기둥이 회전하고 색이 변하는 동안 **CHANGE**는 그대로다. 우리가 발견한 **환각적 깊이와 방향성의 공간**은 기존의 폴리들과 무등산을 향해있다.



뷰폴리에서 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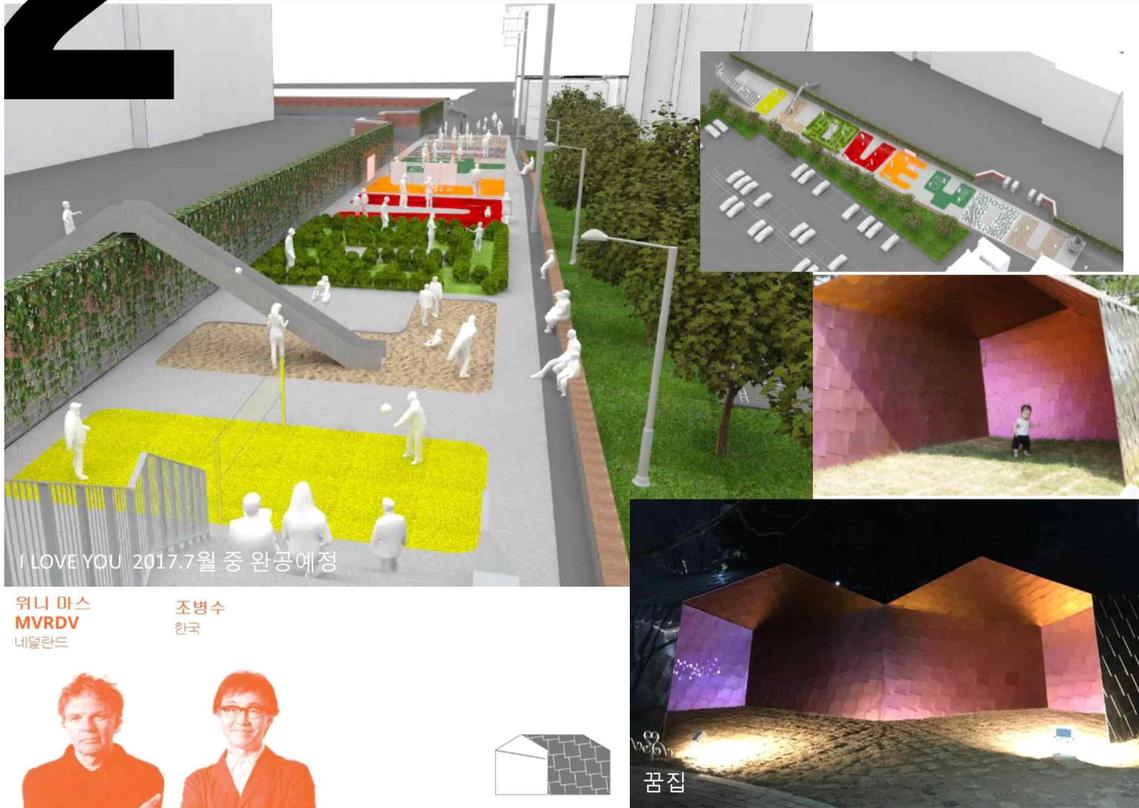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본 뷰폴리



뷰폴리에서 본 무등산 전경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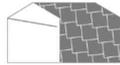
지역주민과 함께 꿈꾸며 이룬다 _ 광주-네덜란드(GD) FOLLY



I LOVE YOUr 2017.7월 중 완공예정

위니 마스
MVRDV
네덜란드

조병수
한국



꿈집

- 작품명: I LOVE YOUr street
- 설치장소: 광주 서석초등학교 앞
- 참여작가: 위니 마스(MVRDV)
- 작품명: 꿈집 Dream House
- 설치장소: 광주 동구 동명로 67번길
- 참여작가: 조병수

광주비엔날레재단과 네덜란드창조산업기금(Netherlands Creative Industries Fund)이 도시의 일상을 새롭게 설계하도록 MOU를 체결 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폴리는 어반 리서치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층위(시민단체, 지역주민, 학교, 학부모, 학생,구청, ACC)와의 설명회, 워크숍 등 시민참여 과정을 통한 공동체적 작품으로 '꿈 집'은 비일상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MVRDV 작품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광주 유일의 보행자도로를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켜 학생들의 통행권과 보행권의 도시공간을 지켜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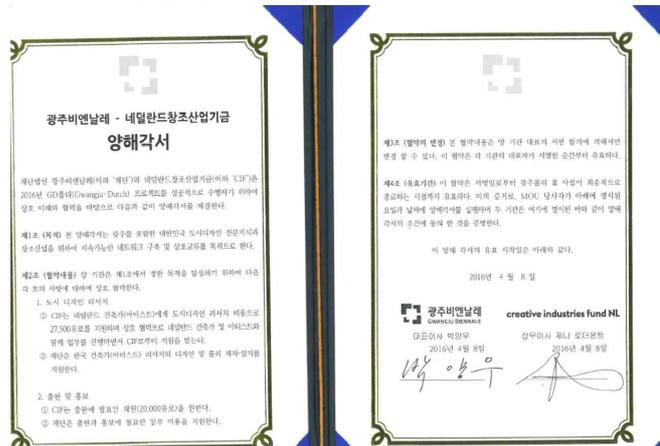
2

지역주민과 함께 꿈꾸며 이룬다 _ 광주-네덜란드(GD) FOLLY

차량통행 중심의 도시에서 **걷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어 학생들의 통행권과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도시 공간 창출**



광주와 네덜란드의 도시디자인 전문지식과 창조산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3

광주의 맛을 청년들과 함께 이어가다 _ 쿡(COOK) FO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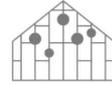


청미장

장진우
한국



콩집



작 품 명: **청미장** (한식당)

설치장소: 동구 동계로 16-19

참여작가: 장진우

콩집 (카페&바)

설치장소: 동구 동계로 16-15

광주의 청년들로 구성된 '맛있는골목협동조합'이 광주전남지역의 재료와 대표음식을 모아놓은 '셀렉다이닝' 플랫폼을 통해 작지만 강한 선순환 모델을 제시한다. 쿡폴리는 공·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유명 셰프의 브랜드 파워를 결합, 자생적으로 공동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도심재생의 방법으로 구도심 재생, 청년실업 문제 등 사회적 화두에 대해 조금은 가볍고 즐겁고 맛있게 접근한다. 카페&바 형태의 유리온실 '콩집'과 한식을 제공하는 한옥 '청미장'으로 구성되며 순이익금의 18%를 쿡폴리 인근 공·폐가 매입과 청년창업에 지원하는 순환적 구조로서 구도심의 공·폐가를 활용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어 타 시도 선진지 견학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3

광주의 맛을 청년들과 함께 이어가다 _ 쿡(COOK) FOLLY

서울 경리단길을 명소로 만든 **장진우 셰프**가 창조한

산수동 빈 한옥을 리모델링한 한식레스토랑 '**청미장**'과 카페 '**콩집**'



구도심재생과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에 '**식당**'이라는 플랫폼을 해결책으로 제안하며

장진우 셰프에게 6개월 동안 요리 및 경영교육을 받은 **광주청년 7명**이

'**맛있는 골목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4

시민들의 아이디어_

건축, 미디어아트가 되다 _ 뽀뽀(FunPun) FOLLY



김찬중
한국



진시영
한국



미디어 셀



무한의 빛



미디어 월



소통의 문



작 품 명: 미디어셀/ 무한의빛/ 미디어월/ 소통의문

설치장소: 광주 동구 광산동38-2/ 충장로 45-2/ 충장로 42/ 충장로 33-1

참여작가: 김찬중 & 진시영

미디어셀: 아시아문화 옆 기존 폴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스를 형성하고 새로운 차원은 공간으로의 포탈역할과 기존의 폴리들과의 연결을 암시하는 뽀뽀폴리의 첫번째 관문이다.

무한의빛: 거울과 LED라인이 만들어 내는 끝없는 그리드는 빛을 이용하여 새롭게 확장된 무한의 공간을 좁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만들어 내며 관람객은 그 안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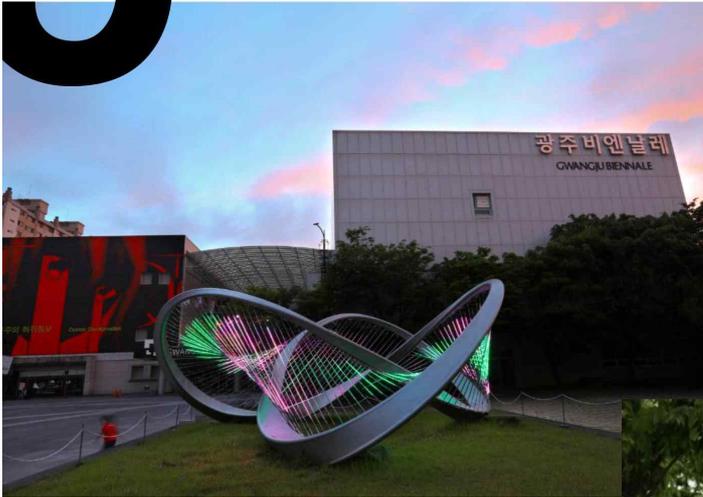
미디어월: 충장로 상권의 대표 아이템인 한복과 보석에서 영감을 얻은 오방색 LED WALL과 부스로 구성되어 있다.

소통의문: 충장로에서 가장 좁은 골목에 위치한 폴리로서 실제 관람객의 이동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폴리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명주실에서 영감을 받아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엮어주듯 배치되어 있는 LED라인들이 관람객을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인도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따라오기도 한다.

주로 한복과 보석등의 판매로 도심 상권이 쇠락한 건물과 건물의 틈새, 벽면에 4개의 부스를 설치, 버려진 공간과 예상치 못한 공간을 인근 상인들과 함께 상가의 아이덴티티를 담았다.

5

작품과 더불어 도심 속에서 놀다 _ 미니(Mini) FOLLY



국형걸
한국

신수경
한국

라이프 한센
덴마크



■ 작품명: **인피니트 엘리먼트**

■ 설치장소: 북구 비엔날레로 111

■ 참여작가: 국형걸 & 신수경

■ 작품명: **스펙트럼**

■ 설치장소: 북구 비엔날레로 111

■ 참여작가: 라이프 한센

인피니트 엘리먼트는 과거, 현재, 미래로 무한 반복하는 시간 안의 거대 생명체를 표현한 조형물이다. 하드웨어로서 건축조형물과 소프트웨어로서 미디어아트가 결합되어 완성된 이 작품은 몸(하드웨어)에 영혼(소프트웨어)이 깃들어 비로소 탄생되는 도심 속 하나의 생명체로서 도시민들과 어우러지며 그들을 대변한다.

스펙트럼(SPECTRUM)은 상황에 따라 도시의 다른 위치로 이동이 가능한 유연하고 유동적인 미니폴리이다. 텐세그리티 구조의 이 미니폴리는 도심의 심장부에서 놀이 활동을 위한 조형물적인 랜드마크이자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한다.

폴리, 도시, 사람



지역아티스트 발굴

도시브랜드 강화



광주만의 매력과 특성



시민참여형 연구프로젝트



장소성'을 활용하는 콘텐츠



구도심 활성화

광주폴리III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
*사진: 광주폴리(IV) 옥폴리(장진우) '청미장'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주요기사

[문화] 광주 도심여행... '폴리'에 주목

날짜 : 2017-05-26, 조회 : 596



이윤정 광주폴리투어 집어차
광주에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폴리로 인해서
광주의 전통, 광주 음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The YouTube Flash API was officially deprecated on January 27th, 2015.



[광주예술여행#1] 광주에만 있는 특별한 여행, '광주폴리'투어
여행, '광주폴리투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폴리'란? '폴리'로 조정의 영역에서 주로 쓰이던 용어로, 원래 정원 디자인에 포함되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 blog.naver.com/cnt_reporter/220749864328

블로그 1-10 / 13,053건



광주 가볼만한곳-광주 쿡폴리(산
(광주시 동구 산수동 363-22번지) 10
었다고합니다. 서울 경리단길을 문화
즐거운 나의 블로그-by 미들 blog.na



전국 각지서 광주폴리로 몰려든다 무등
도심재생·문화예술 교육·청년창업 모색 '3차'
사 이어져 올해 1천200명 참여... '광주폴리'
예술 교육,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먹고 마시고'...광주 구도심에 활력 줄 쿡폴리 문 열어



먹고 마시는 문화명소 '쿡폴리' 10월 이후 광주 동구 산수동에 지어진 쿡폴리 '쿡폴리' 개업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쿡폴리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
근방을 문화명소로 만든 청수동과 함께 '폴리'는 한 번의 행적을 이끈다. 서울역과 함께 '폴리'는 서울역으로 구상
되도록 직접 교육을 받은 지역 청년 17명이 '먹고 마시고'를 운영한다. <광주경제> 17일



'공공예술의 힘'... 쇠락한 구도심 활기 불어넣어
'광주 폴리' 애기다. 지난 2011년 시작돼 올초 3차까
심 골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폴리(Folly)는 본래
건축가 버나드 튀미가 파리의 라빌레트...

시설(하) 예술의 도시재생 모델로 떠오른 광주 쿡폴리
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광주폴리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지난해 새롭게 추진한 광주폴리 3차



[르포] '꿈의 정원이죠' 광주 옛 도심에 부는 '젊음의 향기'

뉴스시스 | 2017.02.23. | 네이버뉴스 | [🔗](#)

【광주=뉴스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구도심에 건축물을 설치해 활력을 불어
넣는 3차 광주폴리 중 '먹고 마시는' 주제의 쿡폴리가 1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식레스토랑...



서울역 공중 보행길 설계한 위니 마스 초등생들과 함께 광주 GD폴리 만든다

광주일보 | 2017.05.22. | [🔗](#)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광주폴리 III' 중 'GD폴리' 설치장소를 서석초 앞 보행자도로(길이 약 1
30m)로 확정하고 학생들을 제작에 참여시킨다. 지난해부터 예산 25억원을 투입, 추진 중인
'광주폴리 III'는 '맛과 멋'을...



광주 옛 도심 재생사업 활기... 젊은층이 몰려든다

동아일보 | 2017.02.23. | 네이버뉴스 | [🔗](#)

쿡 폴리는 광주폴리 3차 사업 중 하나다. 광주폴리는 시설물 공공기능과 장식적 역할을 아
우르며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쿡 폴리는 서울 경리단길을 문화명소로 만
든 장진우 셰프가 참여해...



웹사이트 gwangjufolly.org

페이스북 facebook.com/gwangjufolly

인스타그램 instagram.com/gwangju_folly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1,
61104

Gwangju Biennale Foundation
111, Biennale-ro, Buk-gu, Gwangju,
61104 Rep. of Korea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17 생통교육(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17년 10월 12일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17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